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0. 9월

Vol.7

ISSN 2713-9387

모음

코로나19를 넘어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정책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 4 1. 문화예술 : 독일, 일본, 이탈리아, 홍콩, 아르헨티나, 폴란드, 미국,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스페인, 호주, UAE, 브라질, 카자흐스탄, 터키
- 16 2. 문화산업 : 독일,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 24 3. 문화재 : 독일, UAE, 인도네시아
- 26 4. 체육 : 독일, 캐나다, 호주, 홍콩, 터키, 일본, 브라질
- 30 5. 관광 : 스페인, 호주, 카자흐스탄,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아르헨티나
- 34 6. 문화체육관광통계 : 터키, 중국

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 37 1. 코로나19를 넘어, 온라인 방송·영상으로 전하는 한류 열기
- 41 2.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
- 45 3. 한국이 코로나19 억제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III 이달의 담론 | 문화기억 보존소로서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역할과 운영방안

I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9월 활동계획

I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1. 문화예술 : 독일, 일본, 이탈리아, 홍콩, 아르헨티나, 폴란드, 미국,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스페인, 호주, UAE, 브라질, 카자흐스탄, 터키
2. 문화산업 : 독일,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3. 문화재 : 독일, UAE, 인도네시아
4. 체육 : 독일, 캐나다, 호주, 홍콩, 터키, 일본, 브라질
5. 관광 : 스페인, 호주, 카자흐스탄,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아르헨티나
6. 문화체육관광통계 : 터키, 중국

1. 문화예술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정책

독일

독일 ‘프로이센 문화재단’ 해체·개편 논의

독일 연방·주정부의 학술·정책 자문기구인 독일학술위원회(Wissenschaftsrat)는 현 ‘프로이센 문화재단’¹의 해체를 권고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프로이센 문화재단 구조 조정안’ 보고서에는 프로이센 문화재단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기관이 묶여있어 ‘구조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연방정부의 지원이 베를린 주정부 지원과 중복되기에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주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현재의 구조를 해체하고, 프로이센 문화재단을 4개의 독립기관(△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프로이센 문화유산 비밀기록보존소,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 등)으로 분할한 다음, 국립박물관은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관은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Die Zeit, 2020.07.07)

1 옛 프로이센 주의 문화유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기 위해 독일 연방법에 의해 1957년 설립되었으며,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프로이센 문화유산 비밀기록보존소, 국립음악연구소,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과 연구소를 관할한다.

프로이센 문화재단 소속 페르가몬 박물관



연방정부 문화부, 국공립 무용계에 2,000만 유로 지원

모니카 그뤼터스 문화부 장관은 약 10억 유로(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문화, 새로운 시작(Neustart Kultur)’ 예산 중 2,000만 유로(약 280억 원)를 독일

국공립 무용계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국공립 무용단체 예술가뿐만 아니라 프로덕션과 페스티벌 업계 관계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 무용계가 특히 큰 타격을 입은 것을 강조하며, 무용계에 직접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화지원책 중 'DIS-TANZEN', 'TANZPAKT Reconnect', 'NPN-STEPPING OUT' 등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계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주정부·지자체의 지원 시스템과 문화부 협력기관이 다년간 구축한 경험을 토대로 고안되었으며, 예술가가 빠른 시일 내 공연을 재개해 수입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267, 2020.0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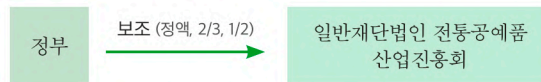
일본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생활양식의 변화와 저렴한 수입품 증가로 전통공예품 산업이 위기를 맞자 일본 정부는 전통공예품 진흥을 위한 보조금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에서 2020년에 시행 중인 전통공예품 관련 보조금으로는 '전통공예품 산업 진흥 보조금'과 '전통공예품 산업 지원 보조금'이 있으며, 두 보조금 모두 전통공예품 생산액 증감률이 일반 생활용품 생산액 증감률을 하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전통공예품 산업 진흥 보조금

- 2020년 전통공예품 산업 진흥 보조금 예산액은 7억 1,000만 엔 (약 80억 원)으로, 전통공예 분야 인재 육성, 기술 승계, 산지 관리, 보급 추진, 수요 개척 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내의 PR사업'과 '포럼 사업'을 통해 전통공예품에 대한 해외 홍보효과를 창출하고 신규 수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공예품 산업 진흥 보조금 조건(대상자, 대상행위, 보조율 등)

- 일본내의 PR 사업 : 유럽진출을 목표로 2016년 10월 프랑스 파리에 상설 쇼룸을 개설했으며, 전국대회 출전, 브랜딩, 거래 지원 등을 통해 일본 전통공예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파리 쇼룸 출전 모습



전국대회 출전 모습



- 포럼 사업 : 전통공예품 제작자, 디자이너,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해 현대인의 요구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는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자기 (아마나카 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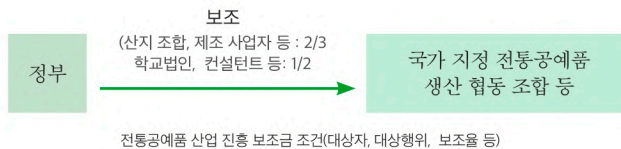
빵 그릇 (오다테 마게윳파)



② 전통공예품 산업 지원 보조금

- 2020년 전통공예품 산업 지원 보조금 예산액은 3억 6,000만 엔 (약 40억 5,0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미리 3~5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경제산업대신²이 선정한 공예품으로 한정한다.

2 경제산업성의 장으로, 통상과 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 수요 구축 사업 : 전통적인 기술·기법을 사용해 제작한 매력적인 상품을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시켜 전통공예품 수요를 확대하고 지명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원한다.

교토부 전시회 출전



요미탄잔 민사 실습 모습



- 후계자 육성 사업: 전통 공예 분야 후계자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업체 종사자의 기술력 향상, 전통 기술·기법 전수 등)을 지원한다.

이탈리아

2차 경기부양책 중 문화 분야 지원정책

· 신규채용·사업 재개 시 사회보조금 납부 금액 삭감

무기계약으로 채용되는 신규 직원에 대한 사회보조금 납부를 6개월 동안 정지하고, 일시귀휴제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한 사회보조금 납부를 4개월 동안 정지한다.

· 공연 분야 종사자 재난 수당 추가 지급

공연 분야 종사자(프리랜서, 단기 계약직)에 대한 재난수당으로 1인당 1,000유로(약 140만 원)를 추가 지급한다.

* 1차 부양책으로 배정된 1인당 600유로(약 84만 원)의 재난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

· 영화관과 기타 극장 부동산세(IMU) 납부 중단

영화관·연극 극장·콘서트 홀·공연장의 주인이 해당 부동산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 2020년 2차 부동산세와 2021~2022년 부동산세 납부를 전부 중단한다.

· 공연·영화·시청각 분야 지원금 증액

기존에 발표한 지원금 2억 4,500만 유로(약 3,438억 5,000만 원)에 9,000만 유로(약 1,263억 원)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배정된 지원금은 총 3억 3,500만 유로(약 4,702억 원)이다.

· 국립박물관 지원금 증액

기존에 발표한 국립박물관 지원금 1억 유로(약 1,403억 7,300만 원)에 6,500만 유로(약 912억 5,000만 원)를 추가로 지급한다.

· 문화 분야 기업 지원금 증액

다양한 문화 분야(출판·공연·대형 이벤트·박람회·학회·사립 박물관) 기업에 6,000만 유로(약 842억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에 제공되는 지원금에 이번 증액분을 합치면 현재까지 배정된 지원금은 총 2억 3,500만 유로(약 3,299억 원)이다.

· 문화부 소속 문화재단 추가 지원금 지급

문화부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문화재단에 500만 유로(약 70억 98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 문화재 보존·가치상승을 위한 투자 지원금 지급

‘문화유산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해 문화유산 보존 활동과 새로운 자산 구매를 위한 지원금으로 2,500만 유로(약 351억 800만 원)를 지급한다.

* 1차 부양책에서 ‘문화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문화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배정된 1억 유로(약 1,400억 원)와 별도로 지급, 1차 부양책은 개인 투자자에게 허용된 열린 펀드 개념의 기금이었던 반면, 위의 지원금은 문화부에서 투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운영

· 어려움에 처한 유명 문화인을 위한 지원금

어려움에 처한 유명 문화인에 대한 지원으로 2020년에 25만 유로(약 3억 5,000만 원)를 증액하고, 2021년에 75만유로(약 10억 5,000만 원)를 추가로 증액한다.

* 위 지원금은, 1985년에 제정된 바켈리 법안(Legge Bacchelli)에 대한 추가예산으로 배정

· 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금

국립행정교육기관(Scuola Nazionale dell'Amministrazione)과 문화부교육기관(Scuola dei beni Culturali)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채용 공고’를 진행한다.

* 문화 분야에 종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100만 유로(약 14억 원) 배정

·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저택에 전기 에너지 무료 공급

민간인 방문이 가능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저택에 5월에 발표한 ‘1차 경기부양책’ 내 규정을 적용해 전기를 무료로 공급한다.

· 근로자 일시귀휴제 적용 기간 연장

근로자 일시귀휴제 적용 가능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총 18주로 연장한다.

· 부동산 구매 대출금 납부 중단

부동산 구매 대출금 납부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중단한다.

· 박람회·회의 취소 피해에 대한 지원책 승인

이탈리아 문화부는 해당기간(2020.02.23.~2020.09.30.) 동안 코로나19로 박람회나 회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박람회나 회의 주최자에게 2,000만 유로(약 280억 5,000만 원)를 지원하는 지원책을 승인했다. 손실액은 전년대비(2019.02.23.~2019.07.31.) 수익과 대비해 책정하고, 자금은 이탈리아 경기부양책 내 배정된 ‘기업·문화기관 비상 자금’을 사용한다.

* 지원 대상 : 주요 사업이 박람회·회의 개최인 업체, 박람회·회의 관련 사업이 총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물류·운송·설치 업체

· 국내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소개 영상 제작·홍보

이탈리아 문화부는 이탈리아 관광을 장려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이탈리아관광청(ENIT), 이탈리아영화

연구센터(CSC)와 함께 홍보한다. 영상은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Rai)를 통해 방영되며, 각 지역의 박물관·도서관·기록보존소를 소개하는 디지털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 ‘휴가 지원금’ 사용 현황

7월 1일 ‘휴가 지원금’ 제도 도입 후 약 1개월 만에 총 4억 5,000만 유로(약 6,316억 원)의 휴가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14만 가구가 약 1만 개의 숙박시설에서 휴가 지원금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관광업에 6,000만 유로(약 842억 원) 이상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탈리아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휴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금 사용 가능한 숙박시설이 있는 곳을 휴가지로 선택했으며, 휴가 지원금의 16%가 에밀리아 로마냐, 10%가 풀리아, 7%가 토스카나 등의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 휴가 지원금 사용 가능한 숙박시설은 약 1만 개로 에밀리아 로마냐(13%),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9%) 그리고 토스카나(7%)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

홍콩

홍콩예술발전국, ‘디지털 플랫폼 특별교부금 제도’ 발표

· **개요** 해당 제도는 홍콩조키클럽자선신탁(The Hong Kong Jockey Club Charities Trust)의 후원으로 예술가 개인과 단체의 ‘디지털 또는 가상 예술 콘텐츠(digital or virtual artistic content)’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제도이다.

· **지원 예산** 최대 58개의 ‘일반 프로젝트’에 최대 30만 홍콩달러(약 4,600만 원)가, 최대 10개의 ‘특화 프로젝트’에 최대 50만 홍콩달러(약 7,700만 원)가 지원된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 예술가에 대한 보수금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주로 홍콩예술발전국에서 2019년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음악, 미술, 춤, 연극, 영상, 문학, 융·복합 예술, 경극 등 예술 전 분야의 개인 혹은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협력 단체** 본 제도는 협력 단체인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홍콩, 유스 스퀘어(Youth Square), 타이 포 아트센터(Tai Po Arts Centre) 등으로부터 행사진행과 장소대관을 지원받는다.

(출처: 홍콩예술발전국, 2020.07.03.)

아르헨티나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문화유산 활동(Activar Patrimonio)’ 공모사업

연방정부는 문화예술계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계약적으로 근무하는 개인종사자(큐레이터, 연구자, 예술가) 30명에게 각 5만 페소(약 85만원)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참가희망자는 아르헨티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령제한은 따로 없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박물관과 국립문화유산사무국의 자산이나 소장품을 활용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의 최대 분량은 5페이지며 소장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의 목표와 세부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문화부 장관과 국립 문화부 박물관·국립 연구소 소장급으로 구성된 임시평가위원회는 제안서를 평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아르헨티나 문화예술부)

‘아르헨티나의 소리, 음악본질(Músicas Esenciales)’ 공모사업

연방정부는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다양한 음악장르를 보호하고자 120명의 음악가를 선정하는 ‘지역음악 발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참가희망자는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선발되면 문화부와 연방문화위원회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서 음악을 홍보할 수 있다.

(출처: Cultura)

폴란드

폴란드 정부, 코로나19 관련 문화지원기금 조성계획 발표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지난 8월 5일 4억 즈워티(약 1,200억 원) 규모의 문화지원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기금은 3월 12일(폴란드 코로나19 확산 공표 시점)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폴란드 지방정부 문화관련 기관,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을 지원하고, 문화기관 운영과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지원기금 지원 사항 세부내역:

- ① 위기방지책(Anti-Crisis Shield)의 민법계약에 따른 문화기업, 비정부기구, 기업 지원방안(수억 원 상당): 보조금, 일자리 유지 보조금, 주차비용(약 100만 원까지), 사회보장세 3개월 면제, 사업운영비 지원(약 160만 원 까지), 지방세 면제 등
- ② 특별 지원 사업, ‘Culture on the Web’ 실시(약 250억 원 상당의 예산)
- ③ 문화유산부 사회 복지 지원금(약 51억 원 상당) - 현재까지 6,000여명에 대한 수당 지급
- ④ 문화유산부 장관 프로그램 예산 증설(약 170억 원~1,200억 원 상당)과 현 상황을 고려한 사업운영 규정 변경

- ⑤ 문화유산부 장학금 예산 규모 증액(약 4억 7,000만원 → 약 20억 원 상당)
 - ⑥ 약 1,600억 원 상당의 BGK은행(Bank Gospodarstwa Krajowego, 폴란드국립산업은행) 신용 보증
 - ⑦ '위기방지책(Anti-Crisis Shields)'과 관련해 영화산업 특별지원
 - ⑧ 인쇄된 서적에 대한 유럽 연합 내 부가가치세 면제
 - ⑨ 전문예술인 권리에 관한 법률작업 지속
 - ⑩ 국립 문화센터 '문화-중개(Kultura-Interwencje)' 프로그램 예산 (약 31억 원 상당)
 - ⑪ 문화유산부와 문화재청이 공동 운영하는 문화기관의 활동 제한과 관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 개정안 마련
 - ⑫ 문화행사 미사용 티켓을 교환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도입
 - ⑬ 예술인이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대체' 활동에 대해 추가 보수 지급
- (출처: 폴란드 문화유산부 홈페이지, 2020.08.05.)

미국

뉴욕시, 문화 부문 예산 11% 삭감

뉴욕시는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인해 발생한 약 90억 달러(약 10조 7,000억 원)의 세수 손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문화 부문 예산을 11% 삭감할 것을 발표했다. 지난 해 뉴욕시 문화국 예산은 사상 최고액인 2억 1,200만 달러(약 2,518억 5,600만 원)였으나 올해는 약 1억 8,900만 달러(약 2,245억 3,200만 원)로 책정되었다.

(출처: NYT, 2020.07.01.)

주요 미술관 인원 삭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1억 5,000만 달러(약 1,779억 9,0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은 최근 181명을 임시 해고하고 93명을 자진퇴직 시키면서, 코로나19 발병 이전과 대비해 직원 수를 20% 가량 감소시켰다. 뉴 뮤지엄(The New Museum)은 지난 7월 직원 41명을 임시해고하고 그 중 18명을 최종 해고 조치했다. 뉴 뮤지엄은 박물관 고위관계자의 임금을 2021년까지 일시 축소하고,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¹을 통해 한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의료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스턴 미술관(MFA, Museum of Fine Arts, Boston) 또한 코로나19로 올해 3월부터 폐관한 상태로, 8월에 56명의 자진퇴직을 신청 받고 57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미술관 측은 이미 미술관장의 연봉 30%를 삭감하고 전체직원의 40% 이상을 임시 해고한 상태이다.

1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은 2020년 미국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 보안법(CARES Act)에 따라, 특정 기업·자영업자·개인 사업자·비영리 단체 등을 돕기 위해 제정한 6,690억 달러(약 793조 7,016억 원) 규모의 기업 대출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급여를 비롯한 기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통해 저금리 민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력감축

존 에프 케네디 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직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64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케네디센터의 최고 경영자는 2020~2021년에 예상되는 2300만 달러(약 272억 8,720만 원)의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감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미국박물관연합, 문화예술계 피해상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미국박물관연합(American Alliance of Museum)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박물관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760여명의 박물관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박물관의 재개장 계획, 전염병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3%는 추가 지원금 부재 시 향후 기관 운영 지속과 재개관을 확신하지 못했고, 16%는 기관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위험이 크다고 답했다. 더불어 대다수의 박물관(87%)은 운영가능자금이 12개월 이하로 남아있으며, 56%는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에 44%의 박물관은 직원 일부를 해고 조치했으며, 41%는 직원 수를 줄이는 방향을 고려중이다. 그동안 박물관은 학생, 부모, 교사에게 예술교육과 경험을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64%의 박물관장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 기타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미국박물관연합, 2020.07.22.)

캐나다

캐나다예술위원회, '2021~2026 5개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계 설문조사 실시

· **배경** 캐나다예술위원회는 '2016~2021 5개년 전략계획' 마지막 해에 문화계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캐나다 내 문화 활동 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예술가 16만여 명(캐나다 노동인구의 1% 해당)과 문화계 종사자 73만 여 명(4%)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가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 창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내 문화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캐나다 문화예술 '5개년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6~2021 전략계획 성과]

- **주요목표** : △예술지원, △문화계의 디지털화, △원주민·원주민 예술가와 관계개선, △캐나다 문화계의 국제적 위상 확보, △형평성 수립 등
- **주요결과** : △예술가·예술단체를 위한 지원금 83% 증가, △증가한 지원금으로 신설된 지원프로그램의 29%가 기존 지원금 수혜자가 아닌

신진 지원자를 지원, △5,000만 캐나다 달러(약 448억 4,500만 원)를 디지털 전략기금으로 지원, △2016년 이전 대비 원주민 예술가 지원기금 3배 이상 증가, △국제 문화 활동 지원금 3배 이상 증가, △이민자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227%, 영어-불어 공용어 소수자단체 지원을 133%,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을 538% 증가

[2021~2026 전략계획 논제]

· **예술계에 영향을 미칠 사회적 변화** : △기후변화와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불확실성, △원주민-비원주민간 화해, △문화단체와 예술행위의 탈 식민지화, △인구변화, △문화교류와 외교, △기술혁명 속도, △일상생활과 노동현상의 변화 등

· **향후 5년간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 :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창출, △작업실·리허설룸 부족, △인터넷·기술·도구·재료 부족, △관객감소, △공공 지원금 확보, △민간부문 지원금 확보, △지원 신청 작성 시 드는 시간과 노력, △공평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차별, △예술교육 비용 등

· **향후 5년간 캐나다에서 예술을 접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참여비용, △문화예술 공간의 폐관, △문화공간이나 행사장에 대한 휠체어 접근성, △문화적 다양성 부족, △거주 도시나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문화예술의 양적 부족, △문화향수를 위한 시간적 부족, △젊은이를 위한 문화교육 부족 등

(출처: 캐나다예술위원회, 2020.07.14.)

프랑스

프랑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활동재개 현황 파악 사이트 개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했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점진적으로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활동재개 현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이트에서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공연장·공원·영화관을 비롯해 현재 9,000여 곳에 이르는 문화예술 기관의 개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출처: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2020.07.01.)

필리핀

필리핀 '문화예술부' 설립 필요성 제기

필리핀 대변인 알란 피터 카에타노(Mr. Alan Peter Cayetano)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류, K-Pop, K-Drama 등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며 국가차원에서 필리핀 문화예술을 홍보하고

공연예술 산업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화예술부'는 필리핀 내 공연예술과 창작활동을 관리하는 정부산하기관을
통합해 설립될 예정이라 밝혔다. 카에타노 대변인은 추가로 문화예술과
창의산업 분야의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국내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필리핀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Manila Bulletin, 2020.07.21.)

스페인

스페인 인구 50% 이상, 이동제한령 이후 문화행사 불참

소비자·이용자 협회(OCU)가 코로나19로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후
변화된 스페인 국민의 소비패턴을 조사할 목적으로 18세에서 74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문화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1%와 31%가 각각 실내체육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중단했다. 응답자의 51%는 더 이상 외식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 반면, 31%는 평소대로 외식을 한다고 답했다.

(출처: ABC, 2020.07.14.)

호주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착수

호주 연방정부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는
코로나19로 교육·문화기관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1968년 제정된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을 개정하기 위해,
2년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구하고 생산성위원회의 2016년 지적재산권
보고서 내 저작권 개선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해 2020년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①고아저작물에 대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모델 도입 ②비상업 저작물 인용에 있어 새로운 공정이용(fair dealing) 예외
도입 ③도서관과 아카이브를 위한 저작권 예외 규정 간소화 ④교육 목적 저
작권 예외 규정 간소화 ⑤법정허락제도(the government statutory licensing
scheme) 개선 등이다.

(출처: 호주 연방정부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부, 2020.08.13.)

UAE

아부다비 아트, 미술품 판매 증진을 위해 온라인 카탈로그 개시

아부다비 아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조해진 미술품 판매증진을 위해 48개 갤러리에서 판매 중인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온라인 카탈로그를 개시했다. 작품의 가격은 1만 달러에서 90만 달러(약 1,200만 원~10억 6,000만 원)이며 그림의 출처는 UAE,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프랑스, 이태리, 미국 그리고 영국 등으로 다양하다.

(출처: 더 내셔널, 2020.08.11.)

브라질

문화 관련 정부기관 조직도 개편 발표

브라질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기존 관광부 내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던 문화 관련 정부기관과 부서의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조직도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관광부에서 문화부 산하로 이동한 기관은 영화위원회(Ancine), 국립문화재청(Iphan), 국립박물관운영위원회(Ibram), 국립도서협회(FBN) 등이 있다.

(출처: Noticias, 2020.08.10.)

카자흐스탄

카자흐 문화체육부, 온라인 콘서트 'Zhaz Kuenderi' 진행

카자흐 문화체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7월 24일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했다. 15개의 지역별 필하모닉과 크리에이티브 팀이 참여했으며, 8월 말까지 콘서트 참여희망 팀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험단계인 현재 약 4,000여명이 콘서트를 시청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콘서트는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TV유선채널에서도 방영할 계획이다.

(출처: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0.08.03.)

터키

문광부와 교육부, '예술교육' 업무 협약 체결

터키 문화관광부, 교육부는 이스탄불대학교, 이스탄불 기술대학교, 마르마라 대학교와 '예술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교육서비스 질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선, 관련 분야 교사 역량 강화, 예술작품 생산 방식 공유, 특수 예술 작업 가능자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

(출처: Hurriyet, 2020.07.01.)

2. 문화산업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정책

독일

독일 연방정부,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400만 유로 특별 지원

독일 연방정부는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문화, 새로운 시작(Neustart Kultur)' 예산 중 400만 유로(약 56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은 이 기금을 사용해 중소 출판사의 참가비용을 최대 50%까지 낮춰 더 많은 출판업체의 참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확장하는 데 투자해, 출판사는 웹상에서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사를 소개하고 홍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은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247, 2020.07.10.)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전경



벨기에

영화관·극장 지원금으로 64만 5,000유로 배정

왈로니·브뤼셀 지방정부 문화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규모 영화관과 극장에 64만 5,000유로(약 9억 원)의 지원금을 배정했다. 일반적으로 지역 소규모 영화관이나 극장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영화산업 전반의 부흥을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소규모 영화관과 극장으로 한정한다. 더불어, 프랑스어권 영화진흥위원회(Centre du Cinema et de l'Audiovisuel)도 영화산업 긴급 지원금으로 675만 유로(약 94억 8,000만 원)를 편성했다.

지원금은 영화 상영회수에 따라 차등 지급

- ① 15편 이상 상영극장(상영관 1~2개) / 1주에 7,500유로(약 1,053만 3,000원) 지원
- ② 30편 이상 상영극장(상영관 3개 이상) / 1주에 15,000유로(약 2,106만 6,000 원) 지원

지원금 수령 요건

- ① 코로나19로 인해 극장운영이 중단되기 전, 왈로니·브뤼셀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운영한 극장
- ② 2019년 기준으로 유럽제작 예술·작가주의 영화(Art & Essai)가 전체 상영 프로그램의 30% 이상이었던 극장

스페인

ICAA(영화·영상예술기관), ‘코로나19 위생·보건’ 관련 특별 지원금 책정

스페인 문체부는 ICAA(영화·영상예술기관)를 통해 ‘코로나19 위생·보건’을 위한 특별 지원금으로 64만 유로(약 9억 원)를 책정했다. 스페인 문체부는 1년 전부터 영화 페스티벌과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온 기획사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을 고려해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영화제 조직기관과 관련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조치를 시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출처: 스페인 문체부, 2020.07.01.)

헝가리

헝가리관광청(MTÜ), 헝가리 음악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 발표

헝가리관광청은 74억 2,000만 포린트(약 294억 5,740만 원) 규모의 헝가리 음악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 중 53억 포린트 상당은 ‘개러지 콘서트’¹ 기획·제작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고, 21억 2,000만 포린트 상당은 전국의 클럽과 콘서트 장에 대한 재정 지원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¹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닌, 녹음·후 작업을 거친 형식의 콘서트이다.

헝가리관광청(MTÜ), 문화예술 축제 진흥을 위한 펀드 조성 발표

헝가리관광청은 7억 포린트(약 27억 7,900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축제 진흥을 위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헝가리음악협회 부회장은 유럽 최대 음악축제로 꼽히는 부다페스트 ‘시겟 페스티벌(Sziget Festival)’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상황을 언급하며 축제 재개와 진흥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금은 보조금 형태로 축제 조직위를 포함한 관련 법인에 분배될 예정이다.

(출처: Portfolio, 2020.08.07.)

‘장벽 없는 문화의 날(Rosconcert)’ 프로젝트 진행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한-러 문화 교류의 해’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자 양국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3시에 양국의 문화예술 공연영상을 온라인으로 상영하는 ‘장벽 없는 문화의 날(Rosconcert)²’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 해당 프로그램은 러시아 문화부의 지원으로 러시아의 날(6월 12일)에 시작되었으며, 타국의 민속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압하지야,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팔레스타인, 인도 등이 이미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온라인 포털인 ‘Culture.RF’을 통해 공연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Culture.RF’ 포털에서 한국문화예술기관의 공연영상 상영:

- 8월11일, 국립현대무용단의 ‘Black Beyond’
- 8월12일, 국립발레단의 ‘허날설현 - 수월경화’
- 8월13일,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러시안 나이트 :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 8월14일, 국립관현악단 ‘아리랑로드 - 디아스포라’

‘네이버 TV’에서 러시아 공연영상 상영:

- 8월11일, ‘유리 바슈메트와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함부르크 공연
- 8월12일, 가스카로프 민속무용단 공연
- 8월13일, 모스크바 뮤지컬 시어터 ‘리버스’
- 8월14일, 모스크바 국립 그젤 무용단 ‘창작 30주년 공연’

(출처: 러시아문화부 홈페이지, 2020.08.11.)

러시아 문화부, ‘Culture of the word’ 대회 개최

러시아 문화부는 국가 프로젝트인 ‘Culture’와 관련해 언론사·블로그·네트워크·미디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신청은 공식 웹 사이트(kulturaslova.ru)를 통해 2020년 9월 14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인터뷰, 사진, 프린트 출판물, 비디오, 온라인 출판물, 라디오 프로그램, 포스트 등이다. 각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졸업장과 기념품이 수여되며 참가자 중 한 명에게는 러시아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특별상이 수여된다. 본 사업의 목적은 문화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굴하고, 문화계 종사자의 직업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또한, 문화 분야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적 관심을 보여주고, 언론과 주 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촉진해 문화활동 대중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출처: 러시아문화부 홈페이지, 2020.08.11.)

미국

소니·유니버설·워너뮤직, 2021년 1월까지 재택근무 권장

미국의 메이저 음반 레이블인 소니·유니버설·워너뮤직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1년 1월까지 재택근무를 권장했다. 유니버설 뮤직의 경우, 2021년 1월 말까지 최소 인원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전체 직원 대상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워너 뮤직의 경우도 빠르면 미국은 2021년 1월부터, 영국은 2020년 10월부터 사무실 근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니도 올해 안에는 재택근무를 지속할 것이고 직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2020.08.04.)

막대한 손실을 입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 인력 감축계획 발표

코로나19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월트 디즈니사는 코로나19 전염을 막고자 세계 곳곳의 디즈니 테마파크를 폐쇄하면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분기 적자를 기록했으며 손실액은 50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에 육박했다.

HBO, CNN, TBS 등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방송채널을 보유한 워너미디어(WarnerMedia) 역시 자체적인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워너미디어는 60억 달러(약 7조 1,220억 원)에 달하는 지출절감을 위해 회사 내 수천 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2020.08.04./ Fortune, 2020.08.05.)

중국

상하이에 '영화·텔레비전 산업 후반 작업 공유 공간' 운영 시작

중국은 상하이 국제관광리조트를 개조해 '영화·텔레비전 산업 후반 작업 공유 공간'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1단계로 앞으로 5년간 2~3단계를 거쳐 매년 5~6개의 대형 스튜디오와 영상제작 공유시설을 건설해 중국에서 가장 큰 '영화·텔레비전 산업 후반 작업 공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유 공간에서는 모션캡처 촬영, 버라이어티 쇼 녹화, 단편 영상촬영, 소규모 영화 서밋 포럼 등 다양한 영상촬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2층에는 영화 후반 작업에 필요한 녹음실, 더빙 스튜디오, 편집실, 상영실, 사무실 공간,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모든 스튜디오는 업계 관계자에게 개방되며,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를 대여할 수도 있다. 공유 공간 내 인재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참고하면, 조명·예술·감독·메이크업·의류와 같은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텔레비전 산업 후반 작업의 순이익은 약 10%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후반 작업에 단계가 많고 예산과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규모 제작사의 경우 전문장비를 구매하는 게 큰 부담일

수 있는데, 공유 공간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런 부담을 줄이고 업계 관계자들이 협력하게 함으로써 영화·텔레비전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해방일보, 2020.07.30.)

중국 내 영화관 재개관 이틀째, 박스오피스 30% 증가

중국영화특별자금관리위원회(영화자금위)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저위험지역 영화관이 영업을 재개한 지 이틀째 되는 7월 21일, 중국 내 박스오피스는 456만 위안(약 7억 8,500만 원)을 기록했고 영화 상영 횟수도 1만 6200회로 영업 재개 첫날과 대비해 각각 30%, 88% 증가했다. 그 중 재상영작 <오살(誤殺)>의 흥행수익이 162만 위안(약 2억 7,800만 원)으로 1위에 등극했고, 그 뒤로 신작 영화 <어 퍼스트 페어웰(第一次的離別)>이 98만 8,000 위안(약 1억 7,000만 원)으로 2위, 픽사 애니메이션 <코코(Coco)>가 75만 5,000 위안(약 1억 3,000만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작년 7월 21일 박스오피스가 2억 6,000만 위안(약 447억 8,760만 원)이고, 상영 횟수가 35만 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영화시장은 여전히 작년의 2% 수준밖에 회복되지 못했다. 현재 영화업계는 블록버스터 급 영화의 개봉연기, 좌석 수를 30%로 제한되는 예매 규정, 일부 영화관의 도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상영 실적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출처: Sina, 2020.07.22.)

중국 광전총국, 올해 연말까지 중국 TV 방송 전면 디지털화 선언

중국 광전총국은 지상파 디지털 TV 커버리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올해 연말까지 전국 TV 방송을 전면 디지털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전총국은 6월 <지상파 아날로그TV 전파송신 종료 계획에 따른 업무 관련 통지> 발표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아날로그 신호 송출을 8월 31일까지만 진행하고 특수한 상황의 경우 광전총국의 기준을 거쳐 12월 31일 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 전역의 유선 TV 이용가구 수는 2억 1,000만 호이며, 위성 TV 이용가구 수는 1억 3,000만 호이다.

(출처: 중국 광전총국, 2020.07.22.)

중국판권협회, '온라인게임판권사업위원회' 출범

중국판권협회는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온라인게임 판권사업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중국판권협회가 직접 관장하는 중국 온라인게임판권사업위원회는 중국판권협회의 2급 위원회로서 저작권 문제의 적극적 해결, 게임 관련 기관과 실무 협조를 통한 업계 고충 해결, 온라인 게임 콘텐츠 사업 확장, 사업 운영과 관리 체계화, 판권침해·부정경쟁행위 제지,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 중국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출처: China Economic Net, 2020.08.02.)

2020년 상반기 '중국 콘텐츠 산업 저작권 보고서' 발표

저작권 서비스 대행사인 라이츠 나이즈(Rights Knights)는 2016년부터 매년 <콘텐츠 산업 저작권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2020년 상반기에 발표한 <콘텐츠 산업 저작권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일부 콘텐츠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각 플랫폼별 저작권 침해 혐의는 작년 대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①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 생태계 변화

2020년 상반기에 창작된 콘텐츠는 약 2,316,866편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3.46% 증가했다. 주로 연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콘텐츠 창작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부동산, 여행, 재테크 콘텐츠 분야의 콘텐츠 창작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전국의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영상 콘텐츠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전했고, 요우쿠(优酷/youku) 아이치이(爱奇艺/iqiyi), 텐센트(腾讯/tencent)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영상 플랫폼뿐 아니라 더우인(抖音/tic tok), 콰이소우(快手/kuai shou) 등 숏 폼 플랫폼의 등장으로 콘텐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10년 간 온라인 교육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새로 설립된 온라인 교육 기관은 13만 개로 전체의 57.6%를 차지한다.

② 저작권 침해 상황 모니터링

콘텐츠 산업 내 저작권 침해 분쟁은 작년 동기 대비 40.1% 감소했으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도 있다. 스포츠, 사회, 엔터테인먼트, 연애, 과학기술 분야의 콘텐츠 침해가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 침해 의심 수량의 75.5%를 차지했다.

2020년 상반기 각 플랫폼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의심 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고, 평항왕(凤凰网)과 더우반(豆瓣)은 각각 95.1%와 90.3%로 그 감소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특정 콘텐츠만 다루는 플랫폼에 비해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유료 콘텐츠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유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상승했다. 바이두티에바(百度贴吧)와 웨이보(微博)의 유료 콘텐츠 침해 건수는 작년에 각각 12,406건과 6,554건에서 34,425건과 7,166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③ 저작권 관리 강도 강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수 급증으로 각 플랫폼은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적판 등 불법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타오바오'의 경우 관리 강도를 '콘텐츠 특별관리'와 '콘텐츠 관리' 등으로 단계별 관리를 통해 계정 차단, 점포 삭제, 상품 제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④ 콘텐츠 변화와 플랫폼 간 침해

유료 강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달간 저작권 침해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하나의 콘텐츠가 플랫폼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한 유료강의 영상 콘텐츠의 경우, 음성과 문자를 변경해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서비스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콘텐츠 침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침해 저작물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콘텐츠 유료화에 따라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⑤ 저작권 침해 리스크 관리

최근 많은 플랫폼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콘텐츠의 문구, 글꼴, 도형, 이미지 등 유사한 부분을 모니터링 해 저작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5년 중 2020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사태가 감소했다. 오픈로(Openlaw)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분쟁은 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출처: CNIPR, 2020.07.30.)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 인니 온라인 게임 ‘판타지 타운(Fantasy Town)’ 지원

지난 7월 공개된 온라인 게임 ‘판타지 타운(Fantasy Town)’은 농경용 모의 온라인 게임으로, 게임의 배경, 건물, 의상 등에 인니의 문화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인니 관광창의경제부는 본 게임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를 해외에 성공적으로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인니상품 애호운동’의 일환으로 해당 게임을 지원한다.

(출처: Kompas, 2020.07.31.)

판타지 타운



관광창의경제부, 단편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지방문화 홍보

관광창의경제부는 ‘단편영화 보기(Viu Shorts!)’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단편영화 16편을 상영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본 프로그램은 올해 2회 째로 인니 전역 33개 도시에서 33명의 감독과 90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를 배출했으며, 이를 통해 인니 지방문화를 홍보하고 콘텐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Kumparan, 2020.07.23.)

문화교육부, 인니 고전음악 디지털화 작업 진행 중

인니 문화교육부 문화총국은 음악을 국가문화유산의 일부로 보존하기 위해 1980년대 이전에 발표된 인니 음악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화 과정은 작품의 제목, 가수, 작곡가, 연도, 생산 라벨 등 중요 데이터를 포함한다. 올해 문화총국이 디지털화하려는 고전음악은 약 1,000건이며, 인니 고전음악을 기록·보관하고 있는 민간재단인 이라마 누산타라(Irama Nusantara)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출처: Liputan 6, 2020.08.07.)

3. 문화재

독일

독일 연방정부 문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380만 유로 지원

독일 연방정부는 문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380만 유로(약 53억 3,626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원프로그램에는 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교회, 민간단체의 약 120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며, 19~20세기 베를린시 건축물 도로계획 도면, 독일중앙기록보관소가 소장 중인 문서, 1896년부터 1945년까지 드레스덴시의 오페라·발레·연극·연주회 프로그램 소책자 등의 문서자료 복원과 보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241, 2020.07.09.)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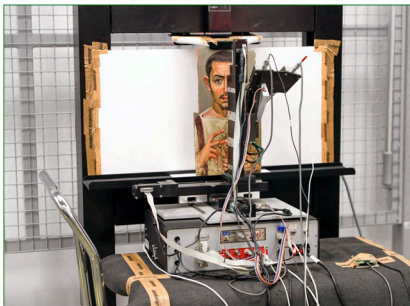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 'Appear 프로젝트' 참여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은 세계적인 박물관(파리 루브르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영국박물관, 이집트박물관 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게티뮤지엄(Getty Museum)이 이끄는 'Appear 프로젝트'¹에 참여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나무 판에 그려진 로마노-이집트 장례식 초상화인 <킵을 든 남자> 작품을 X-Ray Fluorescence(XRF) 분광계로 분석해 초상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다시 칠해졌거나 복원되었는지를 연구한다.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의 큐레이터, 보존가, 미술관계자 등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대작품을 연구하고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물 간 비교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더 내셔널, 2020.08.12.)

¹ 2013년에 게티뮤지엄 고대유물 보존부서에서 시작 된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고대 패널그림(주로 미라 초상화, 수의, 신사, 완전한 초상화 미라 등)과 관련된 유물에 대해 타 기관과 협력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 'Appear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문화교육부, 2024년까지 '향신료의 길' 세계유산 등록 목표

인니 문화교육부 문화총국은 지난 2년 동안 인니 향신료와 관련된 자료수집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4년까지 '향신료의 길'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화총국은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향신료의 인지도를 높이고 '향신료의 길'을 홍보하고자 각 지역에서 '향신료의 길 축제(FTJ, Festival Jalur Rempah)'도 진행한다.

(출처: Kompas, 2020.07.21.)

4. 체육

비인기 종목과 사회적 소수를 위한 스포츠 지원책

독일

독일 연방하원 예산위원회, 대규모 스포츠 지원 결정

독일 연방하원의 예산위원회(Haushaltsausschuss des Deutschen Bundestages)는 '스포츠를 위한 연계·지원 프로그램(Überbrückungs-und Förderprogramme für den Sport)'으로 프로스포츠 클럽, 스포츠, 시립 청소년·문화 시설 보수를 위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 프로스포츠 클럽에 대해 2억 유로(약 2,804억 8,800만 원)가 지원 결정되면서, 올림픽·패럴림픽 종목의 프로스포츠 1, 2부 클럽에 최대 80만 유로(약 11억 2,000만 원)까지 자금지원 가능

* 스포츠, 시립 청소년·문화 시설 보수 프로그램에 500만 유로(약 70억 원)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5억 9,500만 유로(약 8,351억 원)를 추가 지원해 총 9억 2,500만 유로(약 1조 2,984억 원)를 지원 결정

(출처: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 2020.07.01.)

캐나다

캐나다육상협회, '내부고발자' 정책 도입

캐나다육상협회는 선수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정책을 도입했다.

· **발단사유** : 지난 2월 前 겔프대학교(University of Guelph) 코치이자 스피드 리버 육상클럽(Speed River Track and Field Club) 코치였던 데이브 스캇-토마스(Dave Scott-Thomas)가 선수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영구 제명됐으며, 5월 오타와 라이언스 육상클럽(Ottawa Lions Track and Field Club)소속 코치, 앤디 맥이네스(Andy McInnes)와 이사 켄 포터(Ken Porter)도 위법 혐의로 영구 제명되었다.

· **신규 가이드라인** : 이에 캐나다육상협회는 신규 내부고발자 정책을 도입해, 과거 학대·추행·괴롭힘을 당했던 당사자만 고발 가능케 했던 규정을 ▲제 3자가 목격하거나 들은 내용도 신고 가능하게 했고, ▲'2명 이상 대면 규칙(Rule of Two)'을 제정해 코치가 선수와 1:1 대면 시간을 갖는 대신 여러 명의 선수와 대면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선수에게 개인적인 문자전송을 금지시켜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했다.

· **전문가 의견** : 체육 관계자는 신규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육계의 환경 변화를 촉구하고, 코치와 선수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유소년 선수에게 선수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CBC, 2020.08.06.)

호주

호주 연방정부,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 방송 중계 지원 계획 발표

호주 정부는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 방송 중계를 위해 1,000만 호주달러(약 86억 3,710만 원)를 지원하고, 향후 6년 동안 4,000만 호주달러(343억 원)를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통신·사이버안전·예술 장관(Minister for Communications, Cyber Safety, and the Arts)은 이 기금으로 폭스 스포츠(Fox Sports)가 향후 2년 동안 비인기 종목에 대한 중계를 늘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호주 연방정부, 2020.07.22.)

홍콩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훈련 프로그램'

홍콩정부 여기문화서비스부(LCSD)는 '맞춤형 스포츠 훈련 프로그램(Sports Training Programm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0~2021)'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스포츠 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애 종류에 따른 맞춤형으로 구성된 해당 프로그램은 스포츠협회의 자문으로 마련되었고, 올해는 11종의 프로그램(몸-마음스트레칭, 배드민턴, 보체, 플로어하키, 탁구, 피트니스 운동, 하이드로 피트니스, 휠체어 테니스, 수영, 현대무용, 좌식 단체 에어로빅)과 68개의 수업과정이 제공된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최초 시범 운영된 후 올해 세 번째로 운영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 **운영장소** : 18개 지역구 전역 내 정부관할 체육시설(스포츠 센터, 수영장 등)

· **추진목표**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스포츠 활동 참여 장려

· **참가대상** : 다양한 질환을 앓는 장애인(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만성질환자, 청각장애, 시각장애, 자폐증, 정신질환자)

(출처: 홍콩정부 여기문화서비스부)

터키

청소년체육부, 난민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시설 건립

터키 청소년체육부는 '터키 내 난민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시설과 스포츠시설 건립을 진행 중이다. 터키 청소년체육부는 유럽연합(EU), 독일개발은행(KFW)과 공동으로 6~30세 사이의 시리아·터키 청년을 위해 훈련장, 인조 잔디 축구장, 청소년 센터, 청소년 캠프, 다목적 운동장 등 총 28개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해당 시설은 전문가를 고용해 무료로 스포츠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터키 청소년 체육부, 2020.07.22.)

일본

2022년 북경올림픽·패럴림픽 대비 '북경 중점 지원경기' 선정

일본 스포츠청은 지속가능한 스포츠 지원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하계·동계 스포츠 '경기력 강화를 위한 향후 지원방침(스즈키 플랜)'을 발표했다. 스즈키 플랜은 2022년 북경 올림픽·패럴림픽대회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경기종목을 '북경 중점 지원경기'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북경 중점 지원경기'는 '경기성적'과 '중앙경기단체(NF)가 책정하는 강화 전략계획 달성도'를 평가해,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JSC), 공익재단법인 일본올림픽위원회(JOC), 공익재단법인 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 일본패럴림픽위원회(JPC)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북경 중점 지원경기'에 대한 지원내용은 2022년 북경대회를 위해 중앙경기단체(NF)가 실시하는 경기력향상사업의 조성금을 증액하고, '하이 퍼포먼스 서포트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합숙, 트레이닝, 동작분석, 영상분석, 영양, 심리안정 등 각 분야에 있어 전문가 도움을 통해 선수가 시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기는 '북경 중점 지원경기'에 추가로 선정해 지원 종목과 사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일본 스포츠청, 2020.07.31.)

브라질

VR장비를 활용한 훈련 진행

브라질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단은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해 VR장비와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상대 선수의 특징을 시뮬레이션 하는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들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효과적인 훈련을 지속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출처: Agenciabrasil, 2020.07.28.)

VR 훈련



5. 관광

관광업계 타격에 따른 관광 진흥책

스페인

관광 분야 ERTE(임시고용해제) 해당자 100만 명 기록

2020년 스페인의 관광 분야 손실액은 830억 유로(약 116조 3,684억 9,000만 원)로 예상된다. 국경을 재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초 기준으로 관광업계 종사자는 120만 명 감소했으며, ERTE(임시고용해제) 해당자는 전체 종사자인 173만 명 중 절반 정도인 84만 290명뿐이었다. 다양한 보건 수칙이 개발되고 관광산업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 업계의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출처: ABC, 2020.07.14.)

호주

호주 관광업계, 해외 관광객·유학생 급감으로 큰 타격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입출국 제한 조치로 6월 한 달 동안 호주에 입국한 해외 방문객 수는 5,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격감했다. 같은 기간 해외유학생 입국자는 60명으로 전년 동기 호주에 입국한 해외유학생 수인 4만 5,980명 대비 약 100%에 가까운 감소율을 기록했다. 2020년 4~5월 사이 호주 국민이 국내 관광에 지출한 비용은 120억 달러(약 14조 2,320억 원) 감소했으며, 국내 관광 이동 횟수 역시 4월 한 달 동안 1,000만 회 감소했다. 호주 연방 관광장관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빅토리아 주를 제외한 코로나19 지역감염률이 낮은 지역은 주 경계를 개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SBS, 2020.08.14.)

카자흐스탄 카자흐 관광공사 '카작 투어리즘' 예산 절반 이상 삭감조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년 대비 '카작 투어리즘' 예산이 56% 삭감되었고 관광업계 인력도 20% 가량 감축이 결정됐다. 현재 바이러스 전파상황과 주재국의 국가비상사태 조치로 미루어 보아 관광산업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해결책으로 관광 상품 개발범위 확장과 지역별 관광서비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카즈인포, 2020.07.28.)

프랑스

관광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2022년까지 독일과 관광산업 협력 확대 추진

독일은 프랑스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2위를 차지하는 국가로 (1위 영국, 3위 벨기에, 4위 이탈리아),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방독 프랑스인의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56%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역시 독일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순위 중 단기체류는 3위, 장기체류는 6위를 기록한다. 이에 양국 관광공사는 각국의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문화유산과 향토음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행 에이전시도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중매체를 활용해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 주요 공동 사업 예시

- 양국 공동 언론 초청 팸 투어 ('국경여행' 테마) (2014)
- 자전거 여행상품 개발과 공동 캠페인 전개 (2015)
- 관광버스 업체 확충,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추진 (2016)
- 온라인 여행 에이전시 활용 온라인 마케팅 추진 등 (2017~현재)

프랑스 등 10개국, 여행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 위반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시정 요구

2015년 제정된 '유럽연합(EU)의 소비자·여행객 권리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바우처 중 하나를 선택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고자 18개월 이내 재예약 가능한 '바우처 지급'으로만 보상한 사례가 많아, 여행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 위반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적을 받은 국가는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이다. 해당 국가는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개선 방안을 담은 답변서를 유럽연합(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프랑스 관광공사 파리지사)

1. 2차 경기부양책 중 관광분야 지원책

· 관광 업체 신규 채용·사업 재개 시 사회보조금 납부 금액 삭감

관광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회보조금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한다.

* 무기계약으로 채용되는 신규 직원(6개월), 계약직 혹은 계절 근로자(3개월), 일시귀휴제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4개월)

· 근로자 일시 귀휴제 적용 기간 연장

근로자 일시 귀휴제 적용 가능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18주로 연장한다.

· 관광 분야 종사자 재난 수당 지급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또는 단기 계약직 종사자에 대한 재난수당으로 1인당 1,000유로(약 140만 원)를 지원한다.

· 호텔·여행사·여행 에이전시에 임대료 세액공제, 지원금 1억 유로

(약 1,402억 4,400만 원) 증액

호텔·여행사·여행 에이전시(온천업도 추가 포함)에 임대료를 60%까지 세액공제하고, 납부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

총 수입이 500만 유로(70억 3,000만 원) 이하인 관광·숙박업체나 수익한도가 없는 호텔의 경우, 50% 이상의 수익 손실(지난 6월 보고서에서 매출 손실로 된 것을 수익 손실로 수정)을 입은 업체만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여행사, 투어 가이드를 위한 지원금 증액

여행사, 가이드를 위한 지원금을 10배 이상 증액해(2억 4,000 유로 증액), 총 2억 6,000만 유로(약 3,654억 2,220만 원)의 지원금을 마련한다.

· 대출금 납부 정지

대출금 납부를 2021년 3월 31일까지 정지한다.

· 관광 분야 부동산세(IMU) 납부 중단

숙박시설(호텔·B&B·캠핑장·호스텔·레지던스), 박물관, 회의장, 해수욕장, 온천, 클럽 등의 시설에 2020년 2차 부동산세 납부를 중단한다.

· 숙박·관광시설 보수·재정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5%로 인상

숙박·관광시설 보수·재정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65%로 인상한다(이전 세액공제 60%). 지원금은 1억 8,000만 유로(약 2,523억 2,220만 원) 증액한다.

· 역사지구 내 외래 관광객을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거주자수보다 3배 이상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한 역사지구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자, 택시, NCC에 상환 불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년 6월 대비 수입이 3분의 1로 감소한 영리사업자를 위해 상환 불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 관광세(도시세), 지원금 3억 유로 증액

관광세(도시세) 미징수로 손실을 입은 지방자치단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3억 유로(약 4,205억 3,700만 원) 증액한다. 1차 경기부양책시 배정된 1억 유로(약 1,401억 7,900만 원)를 더하면 총 4억 유로(약 5,607억 1,60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다.

· 육장업(호수·강 육장업체에 해수육장과 같은 기준 적용)에 부동산 시장 조사기관(OMI) 수수료 폐지

· 관광용 차량(관광버스 포함) 개선을 위한 지원금 제공

2019년에 배정된 차량 개선 예산에 추가로 7,000만 유로(약 981억 2,530만 원)를 증액한다.

· 카페와 식당의 자릿세 납부 중단 연장

모든 카페와 식당의 야외 영업을 장려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공공장소 자릿세(TOSAP) 납부를 중단한다(1차 경기부양책 시 10월 31일까지인 것을 2개월 연장).

터키

‘안전한 여행 자격증’ 발급 의무화

터키 문광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호텔, 식당, 카페, 여객·운송 업체에 3가지 범주의 항목(보건,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등)을 평가해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한 여행 자격증’을 발급한다. 터키 문광부는 6월 초 권고 사항이었던 ‘안전한 여행 자격증’ 취득 지침을 현재 객실 50개 이상 규모의 모든 숙박시설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호텔 2,211곳, 식당 1,235곳, 여객·운송 업체 1,431개에 해당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출처: Hurriyet, 2020.07.01.)

아르헨티나

관광업계 종사자에 두 달간 긴급 재정 지원금 제공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관광업계(호텔·숙박업체, 관광 상품 판매업체, 차량업체, 기념품 판매상점 등) 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년 7~8월 두 달간 월 1만 페소(약 17만 7,945원)의 긴급 재정 지원금을 제공한다.

(출처: Hurriyet, 2020.0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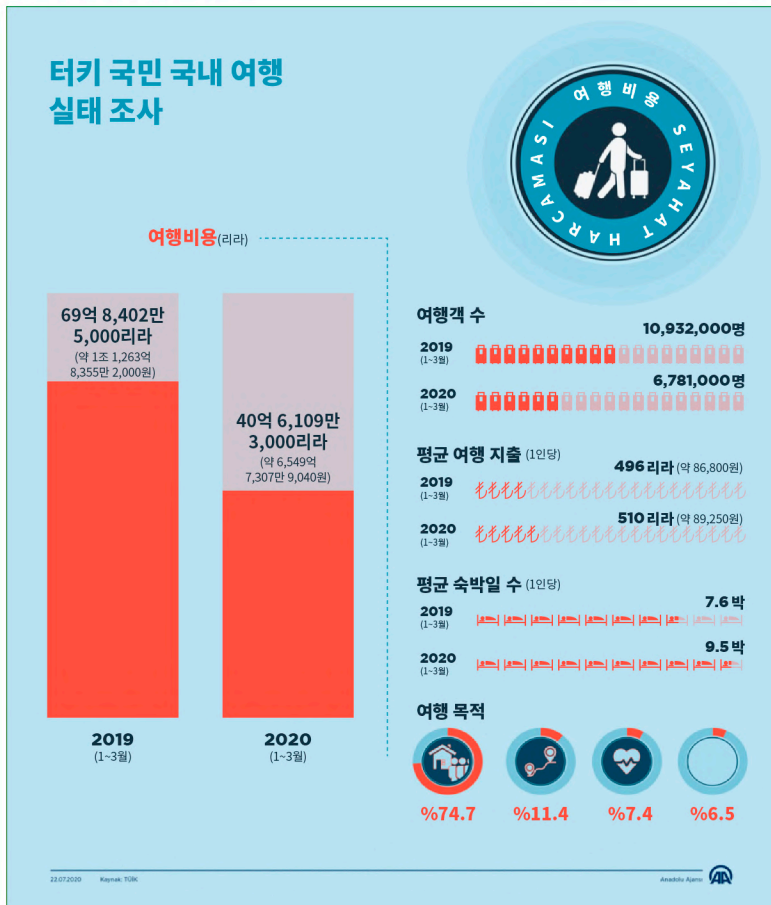
6. 문화체육관광통계

터키

2020년 1분기 국내여행 통계

터키 통계청(TSI)은 2020년 1분기 '국민 국내 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동기 대비 국내여행건수는 43.5% 감소한 795만 8,000건이었고, 여행 지출은 41.9% 감소한 40억 6,100만 리라(약 6,549억 5,808만 원)를 기록했다. 국내 여행 지출의 96%(39억 31만 8,000리라, 약 6,297억 634만 원)는 개인투어 비용이고, 4%(1억 6,077만 5,000리라, 약 259억 2,979만 원)는 패키지 여행 지출로 집계됐다.

국민 국내 여행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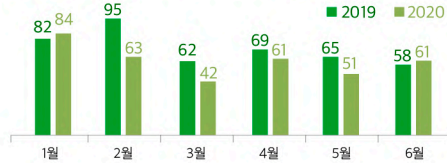


(출처: 아나톨루통신, 2020.0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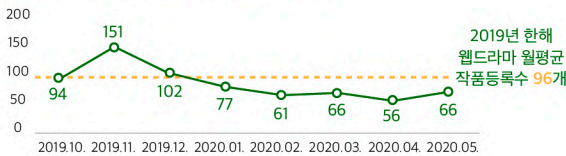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중국 드라마 등록 작품 수 통계

2020년 상반기, 광전총국에 등록된 TV드라마 작품 수는 총 362개로 전년 동기 대비 등록된 작품수보다 69개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내 등록된 웹 드라마 작품 중 동영상 플랫폼이 직접 제작투자에 참여한 작품은 96개로 전체 중 49%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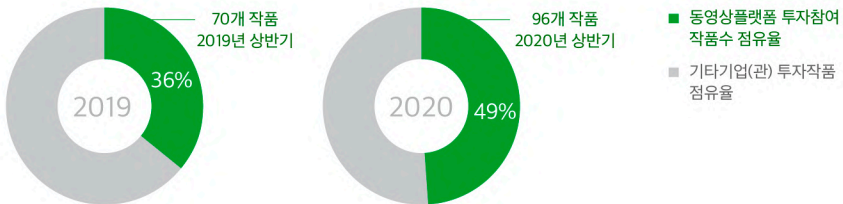
2019/2020년 상반기 TV드라마 작품등록수



2019.10.~2020.5. 웹드라마 작품등록수



2019/2020년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투자참여 작품수 점유율 변화



국가통계국, 2020년 중국 내 문화관련 산업 기업매출액 통계 발표

중국 국가통계국이 7월 31일 전국 59,000여 개 규모 이상의 문화관련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당분야 기업 매출액은 4조 196억 위안(약 684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감소했다.

II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1. 코로나19를 넘어 온라인 방송·영상으로 전하는 한류열기
2.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
3. 한국이 코로나19 억제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코로나19를 넘어, 온라인 방송·영상으로 전하는 한류열기

싱가포르는 The Straits Times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거의 매일 한류 관련 기사를 볼 수 있고, 매월 K-pop 콘서트와 팬 미팅 등이 이어질 만큼 한류열풍이 뜨거운 곳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특히 지난 4월 7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 정부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는 강력한 사회적 통제조치를 실시했다. 보건 의료 등 필수업종이 아닌 대부분의 업종은 재택근무에 돌입했고, 식당도 배달과 포장판매만 허용되었다. 문화예술 공연장이나 관광·스포츠 시설도 예외 없이 문을 닫아야 했다. 심지어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조부모 방문이나 사랑하는 연인과 만남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규제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대사관 주최 문화행사였다. 주싱가포르대사관은 지난 2014년부터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싱가포르예선전을 꾸준히 개최해왔다. 싱가포르가 서울 남짓한 크기의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본선 진출자를 배출할 만큼 현지에서 K-POP에 대한 인기는 뜨거웠다. 때문에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순히 K-POP 문화행사 자체를 취소한다면, K-POP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K-드라마와 K-Food 등 한류 확산 동력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K-POP 월드페스티벌 싱가포르 예선전 개최에 힘을 보내준 현지 파트너, 공관 직원과 함께 깊이 토론하고 고민을 거쳐 내린 결론은 싱가포르 최초 'K-POP 온라인페스티벌 개최'라는 새로운 시도였다.

기존의 K-POP 월드페스티벌 싱가포르 예선전은 누가 K-POP 가수처럼 춤과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의 특성상 뛰어난 K-POP 경연 실력을 갖춘 인제가 많지 않다보니, 매년 예선전 참석자의 면모가 대동소이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K-POP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집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페스티벌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시도였다.

준비 시간이 2주 정도로 촉박했지만, 서킷 브레이커로 많은 싱가포르 국민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머물러야 하는 4월은 역설적으로 K-POP 온라인페스티벌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점도 있었다. 많은 사람이 집에서 고립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당초 5월 4일에 끝날 예정이던 서킷 브레이커가 6월 1일까지 연장되어 낙심하고 있던 터였다. 이에 K-POP 온라인 페스티벌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는 확신이 들었다. 집에서 K-POP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춤을 추다보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에 힘입어 서킷 브레이커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30일, 드디어 주싱가포르대사관이 주최하는 최초의 K-POP 온라인 페스티벌이 열렸다. 싱가포르 국적자만 참가할 수 있었던 기존의 K-POP 월드페스티벌 싱가포르예선전 행사와는 달리 국적을 불문하고 K-POP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페스티벌은 자신이 좋아하는 K-POP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30초 이내의 영상을 찍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순히 K-POP을 즐기는 데 머무르지 않고, K-POP으로 하나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모든 응모영상에는 #Kpopsgunited(K-POP으로 싱가포르가 하나 된다는 뜻)와 #StayStrong 해시태그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tayStrong 캠페인의 색다른 변화를 시도한 셈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답답한 시간을 K-POP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로 다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였다.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K-POP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게 싱가포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

현지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뜨거웠다. 싱가포르 유력언론인 The Straits Times와 MediaCorp에서 이례적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문화홍보관으로 부임한 이후 현지 주요 방송사에서 대사관 주최 행사를 다룬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실시된 행사이자, 3주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00개에 이르는 다양한 영상이 응모에 참여했고, 그 중에는 전직 K-POP 아이돌 가수와 유명 인플루언서, ‘사랑의 불시착’ 주제를 현지어로 부른 싱가포르 가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앙증맞은 댄스를 보여준 귀여운 어린 아이부터 딸과 함께 원더걸스의 Tell Me 댄스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6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K-POP 덕분에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K-POP 온라인페스티벌 포스터 (출처: 주싱가포르 문화홍보관)



있었다며 호의적 댓글을 달았다. 더 주목할 점은 옹모 영상의 조회 수를 모두 더하면 30만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K-POP팬이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류 이미지를 높인 중요한 성과였다.

연합뉴스와 매일경제, 뉴시스 등 주요 국내언론에서도 K-POP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대사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면 신선하다는 댓글도 있었다. 보람이 느껴지는 뿌듯한 순간이었다.

첫 행사임에도 이처럼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데는 SCAPE와 HallyuSG 등 많은 K-POP팬을 보유한 현지 파트너 기관의 도움이 컸다.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 K-POP 온라인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었고, 싱가포르국립대와 난양공과대학 등 각 대학 한류 동호회,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 등 유관기관도 행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온라인 페스티벌에서 중요한 이슈인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는 점도 본받을 만한 점이었다. 대사관이 주최한 행사이기에 K-POP 온라인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나 싱가포르 정부가 시행하는 서킷 브레이크에 반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사관 자문변호사와 협력 파트너인 Scube의 도움이 컸다. 싱가포르 저작권 법령을 사전에 검토하고, 매우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명확히 규정했고, 해당 내용을 카드뉴스 형태로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런 방식이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다른 공관에서도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K-POP 온라인페스티벌 성과에 힘입어, 후속 이벤트로 K-Food 온라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현지 한식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지 고민한 결과였다. 진행방식은 K-POP 온라인 페스티벌과 유사했는데, 한식을 먹거나 직접 요리하는 1분 이내의 영상을 찍어서 #KfoodSGunited 해시태그(K-Food로 싱가포르가 하나 된다는 의미)와 함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방식이었다. 입상자에게는 현지 한식당과 한인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5,000싱가포르 달러, 약 434만 8,650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싱가포르 생강병원(Sengkang General Hospital)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250개의 한식 도시락을 배달했다. 가족, 이웃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고 소통하던 '한식'의 고유한 의미를 싱가포르에서도 실천한 셈이다.

K-Food 온라인 페스티벌의 좋은 취지에 공감한 前 싱가포르 요리사협회장 에릭 테오(Eric Teo) 셰프는 흔쾌히 홍보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었고, 현지 기부 플랫폼 Majulah Movement(말레이어로 전진한다는 뜻)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폴 포스터(Paul Foster) 역시 한식 도시락 배달에 동참해 주었다. 대사관 페이스북에 올린 한식도시락 기부 사진은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 IOC 위원과 국회의원도 직접 감사를 표하는 댓글을 달았다. K-Food 온라인 페스티벌이 양국 우호관계에도 기여한 셈이다. 국내 언론에서도 150여개 대사관 중에서 최초로 싱가포르 현지 의료진에게 한식도시락을 기부한 사실이 조명되며 분에 넘치는 응원을 받았다.

K-Food 온라인 페스티벌을 잘 마무리 한 후,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은 추가로 K-드라마 온라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연말에는 한국 영화를 알리는 K-Movie 온라인 페스티벌도 계획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문화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시기지만,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온라인으로 더 많은 한류 팬들과 소통하며 참신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최해 나가고자 한다.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

본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이슈브리핑 제18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원제 UN E-Government Survey 2020 (2020.07.14.)

발행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링크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Portals/egovkb/Documents/un/2020-Survey/2020%20UN%20E-Government%20Survey%20\(Full%20Report\).pdf](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Portals/egovkb/Documents/un/2020-Survey/2020%20UN%20E-Government%20Survey%20(Full%20Report).pdf)

소개

2년 마다 UN 회원국의 전자정부 발전수준을 평가하는 본 보고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올해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 계획(Decad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 종식, 경제 성장, 사회적 보호, 팬데믹 대응을 비롯한 보건 정책, 교육, 에너지, 인터넷 접근 개선 등에 있어 세계적 노력을 촉구한다. 전자정부는 이를 위해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수행될 당시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였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은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온라인참여지수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발전지수는 직전 평가 대비 한 단계 상승했으며, 세부 평가항목인 ‘온라인서비스’는 평가국 중 유일하게 만점을 기록했다.

*본 보고서는 ‘전자정부(e-government)’와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를 구분하지 않는다.

<표1> 전자정부발전지수 상위 5개국

순위	국가	전자정부발전지수	온라인서비스	통신인프라	인적자본
		하위 세 항목의 평균값	전자정부 법·제도·전략, 누리집 방문 평가 등	인터넷 사용률, 이동전화 사용자 등	성인 문해율, 취학률, 기대교육연수 등
1	덴마크	0.9758점	0.9706점	0.9979점	0.9588점
2	대한민국(11)	0.9560점	1.0000점	0.9684점	0.8997점
3	에스토니아(131)	0.9473점	0.9941점	0.9212점	0.9266점*
4	핀란드(21)	0.9452점	0.9706점	0.9101점	0.9549점
5	호주(31)	0.9432점	0.9471점	0.8825점	1.0000점

* 에스토니아 성인 문해율 '15기준 99.8%(韓 '1499%), 취학률 '17 97.8%(韓 97.48%), 기대교육연수 '18 16.1년(韓 16.4년), 평균교육연수 '18 14.05년(韓 12.2년)

<표2> 온라인참여지수 상위 5개국

순위	국가	온라인 참여지수
		정보제공, 정책참여, 정책결정 종합평가
1	대한민국	1.0000점
	에스토니아	
	미국	
4	일본	0.9881점
	뉴질랜드	

I. 주요 결과 요지

확대되고 있는 전자정부

- 더 많은 국가와 지자체당국이 전자정부 전략을 추진하고, 새로운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예) 전자정부 서비스 플랫폼,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 통합서비스, 온라인 참여·제휴 확대 등
- 전자정부는 서비스 취약지역과 재정 소외지역에도 평등하게 정부 서비스 제공한다.
-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디지털기술 이해·활용능력, 디지털 포용성, 디지털 연결성, 디지털 신원 강화).
-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자원 한계, 디지털 인프라 부족, 역량 부족 등의 과제로 직면하고 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전자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활성화되었으며, 위기관리를 위해 전자정부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
- 탄탄하고 적응력 빠른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잘못된 정보 확산을 줄이고 국민과 지방정부, 의료보건종사자에게 명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최저빈곤층·취약계층은 전자정부 서비스·지원에 원활히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세계 동향

- 2020년 세계 전자정부발전지수 평균 점수는 0.60점(2018년 0.55점에서 상승)을 기록했다.
- UN 회원국의 65%가 전자정부발전지수 '높음' 또는 '매우 높음' 그룹에 속한다.

- 회원국의 22% 이상이 '전자정부발전지수'가 향상됐으며, 자원이 제한되거나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도 상황이 진전되었다.
- 약 80%의 회원국은 디지털 서비스 소외계층(노년층,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 등)이 없도록 노력한다.
- 회원국의 84% 이상이 한 개 이상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사업 등록, 출생증명서 신청, 공과금 납부 서비스 등)를 제공한다.
-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적 조달과 공무원 채용을 하는 국가가 30% 증가했다(회원국의 80%).
 - 전자정부발전지수로 '매우 높음'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 한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이다.
- 전자정부발전지수와 국가 소득수준 간 상관관계가 있으나, 강력한 정치적 의지, 전략적 리더십, 디지털 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기여가 점수 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지역별 동향

- 전자정부발전지수가 '매우 높음'을 기록한 대륙의 비중은, 유럽(58%) > 아시아(26%) > 미주(12%) > 오세아니아(4%) 순이다.
 - 아프리카는 여전히 점수가 낮지만, 발전된 국가 비중이 28%(15개국)로 가장 높다.
 - 아시아의 평균 점수는 0.64점으로('18년 0.58점) 발전지수가 두 번째로 높으며,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를 15계단 이상 상승시킨 국가(8개국)가 가장 많았다.
 - 한국, 싱가포르, 일본에서 보여준 '디지털화'의 효과가 이러한 점수 상승에 보탬이 되었다.
 - 아시아 선도국인 한국의 5년 단위 전자정부계획, 데이터·AI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플랫폼에 주목했다.
 - 유럽은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고, 미주는 86%가 '높음' 혹은 '매우 높음'에 속한다.
- 취약계층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비율(주로 청년층에 한함. 빈곤층과 이주민은 대체로 소외)은, 유럽(93%) > 미주(84%) > 아시아(80%) > 오세아니아(65%) > 아프리카(55%) 순이다.
- 유럽의 95% 국가가 전자정부발전평가 20개 항목 온라인 서비스 중 최소 10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II. 주제별 결과

전자정부발전지수

- 전자정부 발전을 이하기 위해서는 지역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예)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재난위험경감, 핵심 공공분야의 대규모 디지털화 등 중시
 - 관심 분야: 기술 확산-연결성, 교역-디지털 경제, 포용적 사회 건설, 성 격차, 스마트시티, 도시화 등
- 전자정부발전을 위한 리더십과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 UN지역위원회는 이러한 여러 노력을 선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2020년 지방 전자정부발전지수 평균은 0.43점으로, 86개국의 14개 도시만 '매우 높음'을 기록했다.
 - 시(市)포털 사이트는 대부분 기본 정보만 제공하며, 대부분 모바일 기기로 접속이 가능하다.
 - 지방 전자정부 수준이 국가 전자정부 수준과 일치하지 않기에 별개의 평가가 필요하다.

- 주민과 직접 상호작용 해야 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책임주체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일부 지방 정부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중이다.
- 구체적인 전략: AI 챗봇 활용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이행,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의료보건, 수송, 긴급 상황 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지원, 증강·가상현실 활용 등

온라인참여지수

- 정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벗어나 발전청원, 여론조사, 민원신고, 부패신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한국 '국민참여예산(www.mybudget.go.kr)'은 재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관심을 강화한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 온라인참여 이니셔티브의 실패는 예산·편의 분석 부족, 평가미흡 등에서 비롯된다.
- 온라인참여를 정규현안에 편입시키면 행정주의 문화와 참여 인식을 바꿀 수 있다.
- 시민의 온라인참여율은 정부기관, 인터넷 자체, 이용 플랫폼에 대한 신뢰에 의해 좌우된다.

데이터중심의 전자정부

- 데이터 분류·표준화는 공공분야와 통합정부에서 일관되고 호환 가능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은 수년에 걸쳐 이를 수정하고 발전시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왔다.
- 정부와 사회, 혁신정책과 기관,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디지털 기술화하는 정부 모델과 메커니즘으로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
-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www.nirs.go.kr)'은 세계최초의 전체 정부기관 데이터 통합 서비스이다.
 - 이는 정책분야와 정부기관 간 협력 용이성과 정보처리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므로 중요하다.

한국이 코로나19 억제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본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이슈브리핑 제19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원제 What South Korea can teach the world about containing COVID-19

(2020.08.10.)

발행 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¹

저자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링크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8/south-korea-health-system-covid-19-coronavirus-pandemic>

<요지>

-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부터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주요 보건 위기를 극복해 왔다.
- 개도국은 한국형 모델의 기동인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공정한 접근성, 비용 대비 효용 연구를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개발 의제를 보완해 보건의료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신뢰 가능하며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시기만큼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없을 것이다. 각국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 보건 체계 역시 이와 나란히 발전할 것이라고 전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이제 더욱 명확해졌다. 대신 각국은 한국이 기울였던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은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더 폭넓은 사회·경제적 발전 노력이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전략을 강구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현대적이며 튼튼한 보건의료 인프라 덕분에, 여러 차례의 주요 보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역시 다르지 않았다. 초기에 한국은

1 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
1971년 창설된 비영리재단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며, 세계 경제에 관해 세계 저명인사들이 모여 논의하는 국제민간회의를 주도한다. 매년 1~2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2천여 명의 유력 인사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토론하는 포럼이 개최되어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리며, 격월지 『월드 링크(World Link)』를 발행하고 매년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규모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맞았지만, 국가적인 봉쇄조치 없이 신속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억제해냈다. 이러한 성공은 이미 오래 전에 나타났어야 했다.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한국의 급속한 지위 상승은 보건 분야에서 극적인 성과 개선과 함께 이루어졌다. 1960년에서 1990년까지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평균 80명에서 13명으로 급락했으며, 기대수명은 55세에서 72세로 증가했다.

이는 결코 우연히 얻은 결과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특히 농촌, 빈곤층의 보건의료 접근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모든 마을에 보건소(immunization center)를 설립했다.

한국정부는 경제 성장이 막 시작되던 1960년대부터 전국 어느 곳에서든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을 도입했다. 개업의는 공공병원에서 근무했으며, 의대생은 졸업 후 2-5년 동안 보건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신 장학금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지 보건의료 자원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1954년 정부는 14세 미만 아동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 법이 통과되고, 접근 가능한 지역의 보건소 설치와 함께 WHO 자문단 지원도 이루어지면서, 예방접종률이 급증했으며, 그 결과 많은 급성 전염병이 통제되었다. 한국에서는 1961년, 1968년, 1984년 이후로 각각 천연두, 발진티푸스, 소아마비 환자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물론, 경제 발전 진전에 따라 공공의료 이니셔티브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1인당 GDP가 1960년 \$158에서 1990년 \$6,610, 2000년 \$12,257로 성장하면서, 1977년에 도입된 의무적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노동자와 기업의 납입 능력 역시 증가했다.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제도는 1960년대 초반에서부터 존재해왔지만, 숙련된 직원과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해당 제도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신규 보험제도에는 재원이 추가되고, 적용 대상이 자영업자와 비공식 부문 노동자까지 확대되면서, 결국 1989년에는 전 국민에 적용되는 보편적 의료보험제도가 탄생했다. 의무 보험 납입금은 여전히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자원이다.

보건교육 역시 큰 기여를 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질 높은 학교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던 시절에 조차, 정부 기관은 국민에게 신문, 전단,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위생, 식품 위생, 예방접종, 모성·소아 보건, 가족계획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배포하고 교육했다.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이 오르면서, 보건 분야의 성과는 더욱 개선됐다. 이는 국민의 보건 관련 지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출생률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출생률은 1960년 여성 1인당 6.1명에서 1990년 1.6명으로 급락했다. 경제성장, 소득 증가 현상과 함께 출생률 하락추세 덕분에, 어린이 보건에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1970~80년대에는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공·민간의원과 병원이 확산됐다.

오늘날까지 한국은 보건의료체계를 계속 강화,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서비스 이용에 대해 평가하고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광대한 보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형 모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공정한 접근성, 비용 대비 효용은 개도국에도 적용된다. 핵심은 각국의 경제개발 의제를 보완하는 계획적인 보건의료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략에는 병원, 의원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빈곤지역, 농촌 등지의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구상안 역시 담겨 있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이라는 목표를 다가가기 위해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단일한 국가 의료보험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안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일맥상통하는 구체적인 목표(신생아 사망률,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위생, 질병 퇴치, 건강보험 등)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개발 파트너 역시 이러한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면, 수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더 생산적인 삶이 가능해지고, 인적 자원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지속되는 경제 성장을 지탱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주요 보건 위기 사태나 향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효과적인 모델은 이미 존재한다. 개발도상국은 그 효과적인 모델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III

이달의 담론

문화기억 보존소로서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역할과 운영방안

문화기억 보존소로서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역할과 운영방안

1. 방송·영상 아카이브 왜 필요한가?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가 다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방송·영상콘텐츠는 막대한 사회영향력을 미치며 당대의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기록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방송·영상콘텐츠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진 공공자산으로 평가되며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체계적 수집과 보존이 필요하다. 1980년 10월 제 21차 유네스코 총회는 ‘영상의 보호·보존을 위한 권고’를 통해 영상¹은 “인간의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이자 교육적, 문화적, 과학적,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이며, 인간의 상호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존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권고문을 계기로 유럽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가 생겨나게 되었다.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는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방송·영상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아카이브 운영기관을 말한다. 관련 사례로는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추진대책’ 핵심과제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디지털방송아카이브 프로젝트(일명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2005년까지 진행했고, 현재 영화 필름과 함께 다양한 비필름 자료(비디오, 오디오, 포스터, 스틸 등)를 수집하는 영화 아카이브로서 한국영상자료원이 있다.

영국의 미디어학자 그레이엄 머독(Graham Murdock, 2011)이 주창한 ‘디지털 정보공유지’의 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역할과 맥락이 닮아 있다. 머독은 디지털 정보공유지의 두 가지 조건으로 ① 무료로 비상업적 자원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과 ②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결 지점 제공을 제시했다.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부활은 방송·영상 콘텐츠가 우리 사회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자 문화유산으로서, 현 세대와 후대로 전승하는 공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방송·영상 아카이브는 공공서비스로서, 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유·활용되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재창작될 수 있다. 현재 방송사의 디지털아카이브 자료는 사내 프로그램 제작에만 활용되고 있으며,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방영프로그램 재시청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해외와 같이 방송 현업분야의 제작 효율화는 물론, 방영 이후에도 시청자의 창작, 연구, 교육 등을 위해 아카이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 유네스코 권고는 영상을 (1)영화(장편영화, 단편영화, 일반과학 영화, 뉴스, 기록 영화, 만화영화, 교육영화) (2)방송사에 의한,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제작물 (3)위의 (1) (2)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비디오 자료로 분류했다.

2. 해외 방송·영상 아카이브 사례

대표적인 해외사례는 프랑스의 국립시청각기구(INA), 미국의 의회도서관, 영국의 국립영화방송아카이브(NFTVA), 호주의 국립영화음성아카이브(NFSA), 일본의 방송프로그램센터(BPCJ) 등이 있다. 이들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별도의 운영조직을 설립해 국가적 차원에서 방송·영상콘텐츠를 수집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 국립시청각기구(INA)

1992년 방송납본제와 개정 방송법에 의해 INA는 공영·민영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공적 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현재는 100여개 이상의 TV방송채널과 40여개 라디오 방송사로부터 방송·영상 콘텐츠를 수집한다. 더불어 2006년 인터넷자원 납본제 도입에 따라, 미디어관련 웹사이트 14,000여 점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까지 수집·보존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방송·영상아카이브를 운영 중이다. INA의 특징은 교육적·문화적 공공서비스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용자채널을 교육·연구자, 대국민, 방송·영상제작자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방송·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1976년 제정된 연방의회법 제170조는 ‘미국 텔레비전·라디오 아카이브 법(American Television and Radio Archives Act)’을 통해 의회도서관이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수집 보관하는 공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부터 보스턴 공영방송사(WGBH)와 협업해 ‘미국 공영방송아카이브(AAPB,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 국립영화방송아카이브(NFTVA)

영국영화연구소(BFI)의 산하기관인 국립영화방송아카이브에서 BBC, ITV 등 방송 프로그램을 받아 국가 차원에서 보존·활용하고 있다. 공공 아카이브는 공공기록물법, 방송법, 저작권법, BBC와의 협정 등에 근거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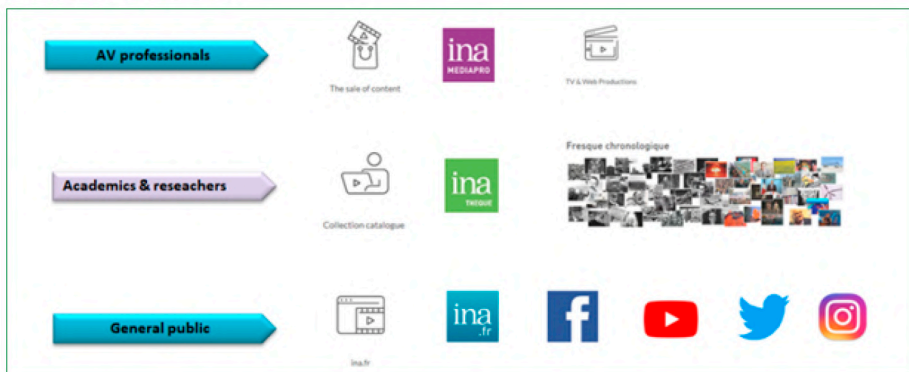
호주 국립영화음성아카이브(NFSA)

2008년 제정된 ‘국립영화음성아카이브법(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ct)’에 근거해 NFSA를 호주의 시청각 자료를 수집 관리 활용하는 공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카이브에서는 온라인 검색서비스는 물론, 일반 시민을 위한 큐레이터 기반 전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학습 웹사이트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리소스를 제공한다.

일본 방송프로그램센터(BPCJ)

일본의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방송 관련 비영리 공익재단 형태로, 1991년부터 방송프로그램을 보관하고 방송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소극적인 선별적 수집에 따라 방송·영상 콘텐츠의 절대량이 적고 공공서비스 정책도 활성화되어 있지

프랑스 INA의 이용자별 서비스 채널



않은 편이지만,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광고(CM) 등에 대해 프로그램 수집기준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국내·해외에서 상을 받은 프로그램,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시청자 반응에서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 현대사·주요인물·전통문화 등에서 기록으로서 가치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국가가 수집,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국내 방송·영상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결 과제

방송·영상아카이브의 역할은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방송·영상을 문화유산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영구보존 활용하는데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 이전에 생산되었던 아날로그 자료에 대한 관리, 보존의 역할도 수행한다. 다시 말해 방송·영상 아카이브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방송·영상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문화유산기관으로서 핵심 가치를 제공하며, 방송·영상 아카이브가 가져다 주는 다양한 이용자 경험과 집단적 기억의 향유를 제공한다. 방송·영상아카이브는 '사회적 문화자산인

해외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사례분석과 시사점

기관명	시사점
프랑스 INA	· 1992년 이후 방송납본제와 방송법에 따라 공·민영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전량 수집 · 기관에 수집되는 모든 콘텐츠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으로서 위상 보유 · 수신료의 일부가 운영재원의 70%를 차지하면서, 수집된 방송자료의 공공서비스에 정당성 부여 · 보존과 활용, 이용자 세분화에 따라 영리적·비영리적 활용 등 다차원적인 서비스 정책 추진 · 영상아카이브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생산과 방영시점부터 방영물과 메타데이터 실시간 수집
미국 의회도서관	· TV, 라디오 아카이브 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과 녹음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 미국공영방송아카이브(AAPB) 구축 · 방송사(PBS, NBC, ABC, CBS등)와의 협약에 기초한 수집체계 운영 · 방송사들이 방송·영상 아카이브 유지와 공공서비스 운영 필요성에 동의하고 의회도서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 콘텐츠에 대한 방문열람 등 대국민 무료서비스 중심
영국 NFTVA	· 공영방송사인 BBC와 영국영화연구소(BFI)의 적극적인 공조로 운영되는 기관 · BBC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방송자료 일체와 민영방송사 등의 자료를 이관 받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활용 · 방송프로그램 수집기준을 명문화시킨 '수집 정책문' 운영 · 수집기준에 따른 선별적 수집으로 서비스에 따라 수집체계의 망라성은 취약
호주 NFSA	· 국립중앙도서관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시청각 매체의 중요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운영 · 2008년 제정된 '국립영화음성아카이브법'에 따른 기관 운영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송자료 수집정책을 통해 기관 비전에 맞는 자료 수집활동 수행 · 검색서비스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료를 직접 접할 수 있는 큐레이션에도 적극 참여 · 시청각 자료를 소장한 일반 시민이나 다른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보존매뉴얼 배포
일본 BPCJ	· 일본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방송관련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1991년부터 방송프로그램 보관, 방송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운영 · TV, 라디오 프로그램은 문화재로서 수집·보관을 지향 · TV, 라디오, 광고 등 유형별 수집선별 기준을 선정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만 선별적으로 수집, 관리, 서비스 · 선별적 수집정책과 구매에 의한 수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대상 콘텐츠 절대량이 적은 편

방송·영상콘텐츠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보존 아카이브'로서, 이를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관련 부가정보를 교육, 연구, 창작에 활용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해야할 이슈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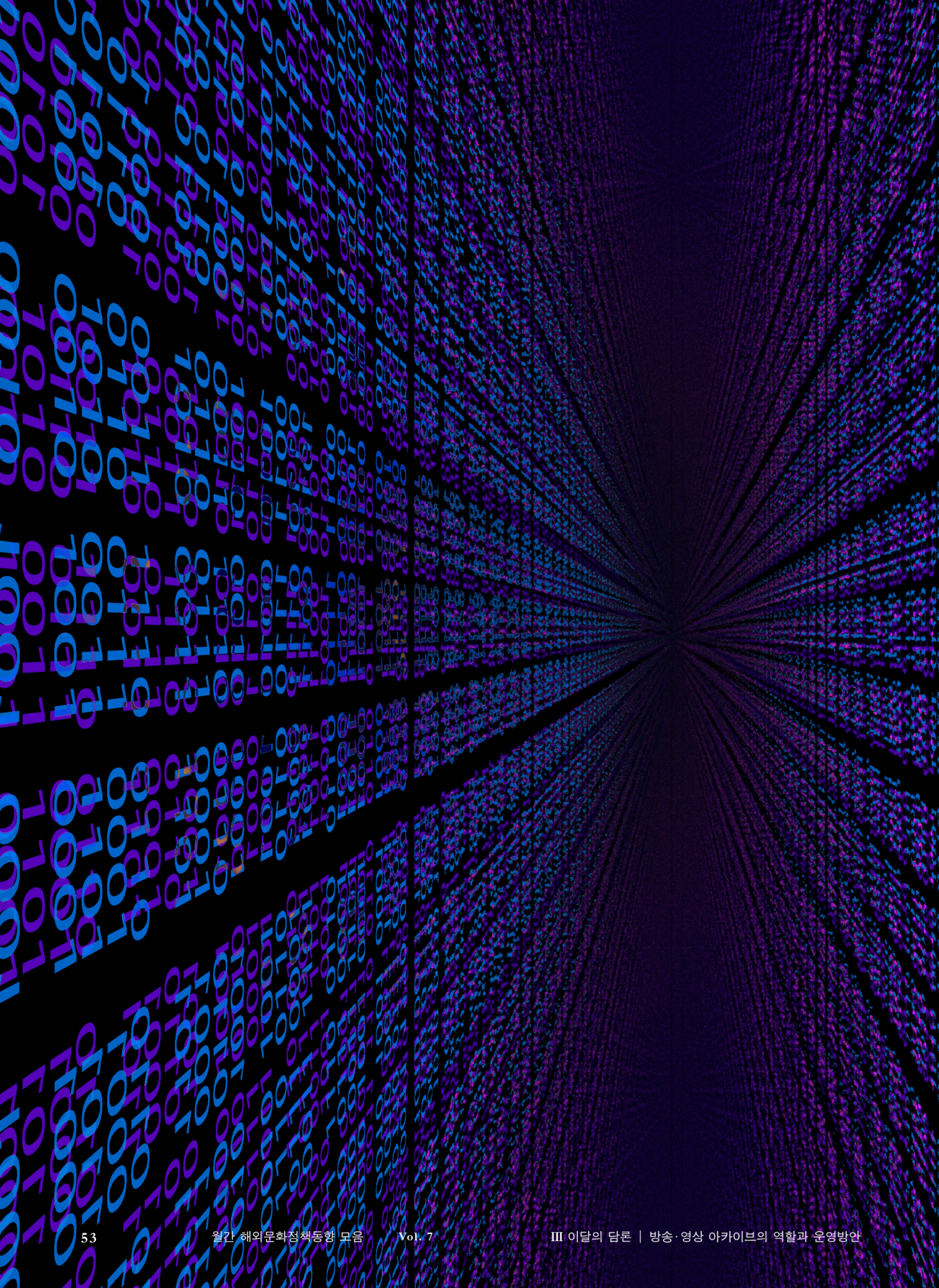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아카이브기관 설립 목적, 핵심 사업을 정의하여 기관이 방송·영상 콘텐츠를 수집·보존·유통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적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핵심자원 수집 측면에서 콘텐츠 공급자와의 협력구조가 다양한 핵심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프랑스 INA의 경우에는 방송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상콘텐츠까지 망라된 수집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 수집과 보존을 방송사와 협업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소극적인 선별적 수집과 유상구입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집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수집 정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카이브 설립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한 순서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여부를 따져 공영방송사부터 민영지상파, 보도전문채널, 공공채널까지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만 협력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진흥기금 등으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 프로그램, 한국문화재단의 문화유산채널처럼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 국가가 영구 보관해야할 가치 높은 디지털 영상 콘텐츠도 수집의 범위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핵심 이용자로 교육·연구자를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방송·영상제작사가 활용하는 콘텐츠 유통과 활용에 대한 기대도 충족시켜야 한다. 사례에서 살펴본 해외 국가는 대부분 온·오프라인의

투 트랙(Two track) 공공서비스를 지향하면서, 온라인에서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관계가 해소된 영상을 공개하고 시·공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는 방송·영상 콘텐츠의 보존과 활용, 유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접목된 방송·영상아카이브는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빅데이터 센터이자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안정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로서 미래 문화유산 디지털 저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V

What's On KCC abroad

[재외한국문화원 9월 활동계획]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국

○ 2020년 런던한국영화제 티저 상영회 [9.10. | 런던 제네시스 시네마]

- 최신 한국영화를 유료로 상영하고, 영국 내 한국영화 전문가를 초청해 상영 전 인트로 진행. 9월에는 <82년생 김지영> 상영 예정

○ 온라인 KCCUK 컬처 시리즈 [4~9월 (격주) | 문화원 누리집]

- 한복, 공예, 한식, 발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특집 블로그를 문화원 누리집과 뉴스레터를 통해 격주로 발행해 영국 관객에게 한국문화 소개

프랑스

○ <K-Beauty의 어제와 오늘> 행사 [9.5. | 파브리크 행사장]

- 뷰티에 관심 있는 뷰티 애호가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K-Beauty 시연, 관련 컨퍼런스, 체험 행사 진행

○ 한국 영화 주간 [9.21.~9.25. | 문화원 오디토리움]

- 한 주간 신상옥, 김기영, 임권택, 이창동의 고전 영화 5편을 상영하고 한국 영화사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진행

벨기에

○ 제7회 한-벨 만화교류특별전 [9.10.~10.30. | 문화원]

- 대상 : 벨기에만화박물관 Willem Degraeve 홍보국장, 벨기에만화박물관 큐레이터, 한-벨 만화가, 만화 전문잡지 스트립기즈 편집장, 현지 언론인, 문화예술 관계자, 일반 관객 등
- 내용 : 한국과 벨기에 만화 원화, 디지털 이미지, 영상, 단행본 등 자료전시, 체험 공간 구성, 한-벨 만화가 초청 컨퍼런스 개최, 만화가 라이브 드로잉 쇼 개최 등

○ 2020 브뤼셀국제만화축제 [9.10.~10.30. | 브뤼셀국제만화축제]

- 한국 웹툰 전시, 번역 도서 전시, 한국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한국문화원 관련 자료 배포

○ <온라인 문학관> 시리즈 개최 [8~9월 | 문화원 누리집, SNS]

- ① 한국문학계 주요 작가의 소개되지 않은 단편을 현지인에게 소개하는 <온라인 문학관>

시리즈 개최

※ 현지인이 낭독회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된 자막 제작
(한강, 배수아 작가 등)

- ② 향후 현지 도서관람회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퍼포먼스와 영상이
포함된 낭독회 영상 제작

독일

○ 한국 웹툰 온라인 홍보 [9월~ | 웹툰 온라인 플랫폼]

- 한국 웹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업으로 '한국 웹툰
독일 홍보 사업'을 진행. 한국 웹툰을 독일어로 번역해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

○ 9월의 한국영화 [9월 중 | 문화원 스트리밍 플랫폼(K-Movie Base)]

-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한국영화 1편을 10일간 무료로 제공하는
상영회 개최

○ 제 2회 한국창작음악 페스티벌

[9.6. |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프라인 소규모 초청, 온라인 상영]

- 대상 : 한국작곡가, 현지 현대음악전문가, 현지 음악애호가
- 내용 : 한국 현대음악 작곡가의 창작음악을 소개(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추진위 공동주체)

이탈리아

○ <2020 온라인 로마 한국주간> 문화행사

[9.28.~10.2. | 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SNS]

- 온라인 전시회 : <조선, 역병에 맞서다>
- 온라인 공연 : 생동감 크루의 <Harmony of Light> 실시간 스트리밍 공연 (문화원 누리집)
- 온라인 한국영화상영회 : 한국영화 총 3편
- 영상 제작 : 한국관련 단편영화, 웹 드라마, 트레일러 티저 영상 등

○ 문화원 상설강좌 온라인 한국어, 한국문화 강좌

[9.17.~12.11. | 문화원 유튜브, 세종학당 플랫폼]

- 문화원 유튜브를 통해 매주 월·화(한식), 수(태권도), 목(한국무용) 강좌 영상 업로드,
문화원 유튜브와 세종학당 플랫폼을 활용해 총 7개 과정 10개 반의 화상강좌 진행

스페인

<케이팝 코넥타: 이베로아메리카 케이팝 스타즈 페스티벌> 포스터

사진출처: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제공



○ <케이팝 코넥타: 이베로아메리카 케이팝 스타즈 페스티벌>

[9.5. | 온라인 콘서트 (22:00 스페인 | 17:00 아르헨티나, 브라질 | 15:00 멕시코)]

※당일 문화원에 일반관객 20여 명을 초청해 축제영상을 상영하는 오프라인 행사 개최]

- 대상 : 이베로아메리카 33개국 소재 케이팝 팬, 한류 애호가
- 내용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의 K팝 애호가에게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온라인 콘서트 <케이팝 코넥타: 이베로아메리카 케이팝 스타즈 페스티벌> 개최. 인구 6억 5천 만 명 규모의 한류 잠재력이 높은 이베로아메리카 권역을 대상으로 한류에 대한 인지도를 공고히 하고, 스페인어권에서 유명한 한인 인플루언서 '지니채널' (유튜브 팔로워 90만 명)을 진행자로 초청해 홍보효과 제고
- 선발 : 케이팝 커버 댄스·가창 부문 4개국 8개 팀 (각국 2팀) 선발

○ 이이남 미디어 아트 전 <시그널 The Signal> [9.30.~11.13. | 문화원 갤러리 한울]

- 한-스페인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대표적인 뉴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개인전 개최.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교류 상징을 담은 '미인도와 벨라스케스 그리고 재미이야기' 작품을 주축으로 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 소개

○ 테네리페 한국영화상영회 <한국영화 100년> [9~10월 | 카나리아 제도 필모테카]

- 한국문화원, 카나리아 필모테카, 시네아시아 카나리아 필모테카, 시네아시아와 협력해 첫 한국영화상영회 개최, 엄선된 5편의 영화를 테네리페와 라스팔마스 두 섬에서 상영. <한국영화 100년>이라는 제목아래 한류로 알려진 한국영화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는 마스터클래스 제공

러시아

○ 온라인 페스티벌 K-FEST 2020, <한국문화관광 Festival of Korean Culture & Tourism> [9.28.~11.30. (*수교기념일 9.30.) | 온라인]

-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한국문화관광 홍보를 통한 방한 관심 증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한국문화관광 페스티벌 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
- △ 한국 사진 콘텐츠 공모전 △ K-Tour 랜선 여행 △ 상설공연 △ K-스포츠 △ K-뷰티
- △ 온라인 영화제 △전시 투어 △한국 음식 콘텐츠 제작 △ 한국어 등 진행

○ 온라인 페스티벌 K-Fest 2020, <렛츠 댄스> 케이팝 경연대회 [9.1.~11월 초 | 온라인]

- 한국문화 온라인 페스티벌 사업의 일환으로 케이팝 애호가를 위한 온라인 케이팝 커버댄스 경연대회 개최
- 1차 예선 결과 발표 : 2020.9.28.
- 2차 예선 결과 발표 : 2020.10월 2~3주
- 결선 결과 발표 : 2020.10월 말~11월 초

스웨덴

○ 제5회 한국문화축제 in Sweden [9.27. 16:00-18:00 | 온라인 플랫폼(www.koreanculturefestival.se)과 KBS 디지털플랫폼 내 Live채널]

- K-POP 커버댄스(현지 K-POP 그룹), 한국가곡(스웨덴 왕립오페라단), 태권도 품새(현지 태권도 수련생), KBS의 한국문화 디지털콘텐츠 등을 활용해 축제 영상 제작·방영

○ <에테보리 국제도서전> 연계 한국문학 작품 전시

- 온라인 <에테보리 국제도서전>에서 한국문학 작품 전시
- (한국) 9.4.~9.10. |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에테보리 킬러콘텐츠 70종 전시)
- (스웨덴) 9.24.~9.27. | 한국전시와 작가 인터뷰 등을 온라인 「에테보리 국제도서전」에서 방영

폴란드

○ 문화원 하반기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3 [9.18.~10.16. | 문화원 누리집]

- 현대 즉흥음악가 '지박 컨템퍼러리'의 공연실황 영상을 약 한 달간 문화원 누리집에서 공개예정

헝가리

○ 2020 제13회 헝가리 한국영화제 [9.4.~9.10. | 부다페스트 코르빈 극장]

- 부다페스트필름연합 관계자, 헝가리 관객 등을 대상으로 한국영화제 개최

○ <홍선미 퀸텟 콘서트 Sunmi Hong Quintet Concert>

[9.9. | BMC Opus Jazz Club]

- 부다페스트 뮤직 센터(오퍼스 재즈 클럽)와 협력해 국제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인 재즈 음악가 소개

<2020 제13회 헝가리 한국영화제> 포스터

(사진출처: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제공)



<홍선미 퀸텟 콘서트 Sunmi Hong Quintet Concert> 포스터

(사진출처: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제공)



터키

○ 한가위 전통한마당 [9.26. | 문화원]

- 한국인과 터키인을 한조로 편성해 조별대항 한국 전통놀이 대결, 양국민의 우호 교류 증진 행사 진행

미국 - 워싱턴

○ 국립현대무용단 <DANCE ON AIR> 협력 행사 [8~11월 | 온라인]

- 국립현대무용단과 협력해 온라인으로 공연영상 제공, 우수한 한국의 현대무용과 공연예술을 현지에 소개 *9월: 비욘드 블랙

○ <Korean Principal Dancer Series 수석 무용수> 시리즈 [9~12월 | 온라인]

- 현지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한인 수석무용수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 제작
*9월: 워싱턴발레단 수석무용수 이은원, 10-12월(미정)

미국 - 뉴욕

○ 한국문화체험: 서울시무용단 <뽀> 온라인 상영회 [9.18. | 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 세종문화회관 소속 서울시무용단과 협업체 대표 작품 <뽀>의 온라인 상영회 개최

○ 뉴욕한국문화원x서울돈화문국악당 <Korean Music NOW> [9월 | 문화원 누리집]

- 서울을 대표하는 국악 전문 공연장인 돈화문국악당의 온라인 공연 LINK 중 실력을 인정받아 뉴욕에서 공연했던 이력을 갖춘 11개 팀을 선별해 7월부터 12월까지 격주 금요일마다 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공연 개최. 9월에는 바라지, 블랙스트링 등 2개의 공연 상영 예정

○ 우관스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한국 사찰음식 요리시연 [9월 | 문화원 누리집]

- 한국사찰음식의 대가 중 우관스님의 사찰음식을 배워보는 프로그램 진행. 2019년 우수 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뉴욕 유명 요리학교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사찰 음식 요리 특강>의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을 재편집해 문화원 누리집에 공개

○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8.28.~9.12. | Smart Cinema USA]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있는 Smart Cinema USA사와 협력해 온라인 영화제 개최
-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버스터에서부터 아트하우스 독립영화까지 한국영화 고유의 생동력과 장르적 다양성을 조명
- △ 상영영화: <해치지 않아>, <82년생 김지영>, <찬실이는 복도 많지>, <야구소녀> 등 15편

미국 - LA

○ 2020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9.1.~10.9. | 문화원 누리집]

- 한글날을 기념해 미국 내 세종학당 수강생과 한국어 학습자에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어 학습의욕을 강화

○ 2020 한국 문화가 있는 날 특별 공연 <리처드 용재오닐 비올라 온라인 콘서트> 개최 [9.30. | LA문화원 누리집, SNS]

- 리처드 용재오닐을 초청해 비올라 공연, 인터뷰 영상 등을 제공하는 특별 공연 개최

○ LA개원 4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시리즈 1 [9.18.~10.16. | LA문화원 아트갤러리]

- <특별교류전 : 동서의 빛 너머>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원로 단색화가들과 미국의 원로 Light&Space 작가들의 교류전 개최

캐나다

○ 2020 한국문화주간 <한복전시> [9.28. | 문화원 전시실]

- 2020 한국문화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한복진흥센터에서 후원하는 전시용 한복(흔레복, 관례복, 기본한복)과 체험용 한복을 전시하고 관련된 온-오프라인 체험행사 진행

○ 2020 한국문화주간 <현지 배우,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한식 영상 제작> [9월 | 온라인]

- 현지 한식 전문가가 진행하는 한식 만들기 프로젝트에 현지 배우 혹은 유명 셰프를 초청해 한식 홍보

○ <리듬풍경> 전시 [7.8.~1.3. | 오타와시립미술관]

- KOFICE지원사업 트레블링코리아안아츠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리듬풍경> 전시 운영

브라질

○ 제1회 국제 온라인 영화제 [9.1.~9.30. | 온라인 플랫폼]

- 각국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영, 문화원은 주상파울루총영사관과 협조해 한-브 국제방송교류협력을 계기로 공동제작 한 다큐멘터리 2편 <해녀: 바다의 힘>, <사찰의 맛> 상영 계획

○ 장애우 예술인 초청 사업 [9.21.~9.27. 중 진행 | 문화원 유튜브]

- 브라질 장애인의 날 계기 상파울루 시정부 협력 장애예술인 문화공연 추진
(김경민 피아니스트 섭외 예정)

멕시코

<광복절 75주년 기념 온라인 영화 상영회>

포스터 (사진출처: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제공)



○ 광복절 75주년 기념 온라인 영화 상영회

[8.15.~9.6. | 문화원 제작 온라인 플랫폼 (kmoviemex.org)]

-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동주>를 문화원 온라인 플랫폼에서 3주간 상영

○ 한글날 계기 한글 디자인 공모전

[9.14.~10.9. | 온라인]

- 한글날을 맞아 한글 디자인 공모전 개최, 한글 단어, 낱자 등을 활용해 콘텐츠, 작품, 또는 제품을 디자인해 우수작은 문화원 전시실 내 전시 예정

아르헨티나

○ 온라인공연 <국악X탱고/재즈=우리의 음악>

[8.20.~ | 문화원 유튜브, SNS]

- 한국의 국악과 아르헨티나의 음악인 탱고를 국악기를 사용해 재즈로 재해석, 한국의 전래동요, 민요 등을 국악기로 연주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곡목과 함께 설명. 조윤성 트리오와 국악연주자의 온라인 공연 개최(콘텐츠 배포)

<국악X탱고/재즈=우리의 음악> 포스터
(사진출처: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제공)



○ 제7회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영화제 [9.21.~10.12.(3주) | 온라인 플랫폼(cine.ar)]

- 국립영화영상위원회, 마르델플라타 국제영화제 협력행사로 중남미 최초로 온라인 한국 영화제를 개최. 상업영화, 독립영화(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해외 수상작, 박스오피스 10위 내의 화제작 등을 선정해 상영. 개막식, 릴레이강연, 한국영화 포스터 온라인전시 등 부대행사 운영

북경

○ <낮선 전쟁> 라이브 전시투어 [9월 중 | 문화원 온라인 플랫폼]

-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계기로 한국전쟁 참전 종군 화가부터 국내외 작가 50여명의 회화, 설치, 영상 등 작품 250여점을 온라인 전시로 소개

○ 온라인 한지공예 특강 [9월 매주 토요일 (총4회) | 온라인]

- 钉钉(딩딩, DingTalk) 플랫폼을 활용해 등, 연필꽂이, 보석함 등을 한지로 만드는 온라인 화상 강좌 진행

○ 2020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류회·베이징국제관광박람회 한국문화·관광 사진전 [9.1.~12.31. | 온라인 플랫폼(개설 중)]

- 한국문화관광 사진 100점(문화원 20점 제공), 동영상 7점 등 온라인 홍보
※ 무역교류회 한국관 부스 설치 운영(9.3.~9.7.) 주중 한국대사관과 연계 참여

상하이

○ 한·중 우호 한국문화제 <한풍제>

[8.15.~9.13. 15:00-22:00 | 상하이 한인타운 거리(上海虹泉路井亭天地)]

- K-뷰티, K-푸드, K-리빙, e스포츠 등 주제별 다양한 행사 진행
- 규모 : ① 면적·관객 : 총 30개 부스, 30일간 약 30만 명 관객 예상
② 참여 기업 : 100여개

○ 한·중 수교 28주년 한중문화교류·무역추진을 위한 <17초 영화제>

- 기간 : 8.2.~8.23. 접수 → 8.24.~8.27. 심사 → 9.4. 발표
- 참여기관 : 대한민국주상하이총영사관, 주상하이한국문화원, 무역협회상하이대표처

홍콩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초청전 <난립예정지> [8.11.~9.26. | 문화원 7층 전시실]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6월에 진행한 14기 입주 작가 프리뷰 전시 중 5인 (안효찬, 전지인, 모소현, 임지민, 실라스 풍)의 작품을 선별해 문화원에서 전시

○ 케이팝 댄스보컬 콘테스트 <K-POP STAGE FOR YOU>

[8~9월 중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 | 문화원 6층 다목적 홀, 홍콩 내 스튜디오]

- 케이팝을 좋아하는 홍콩시민을 대상으로 보컬·댄스 콘테스트 개최. 온라인 예심 진행 후 무관중 녹화 대회 진행 예정

○ 한국 지역관광 전시 [8~9월 중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 | 문화원 6층 다목적 홀]

- 홍콩시민 대상 사전투표로 선정된 한국의 세 지역(파주, 경주, 담양)의 특산품, 사진, 기념품 등을 소개하는 영상 제작, 온라인으로 업로드
- ※ 한국 지역관광 소개방송의 경우, 3회 업로드 완료(7.28./8.4./8.11.)

<난립예정지> 전시회 포스터

(사진출처: 주홍콩 한국문화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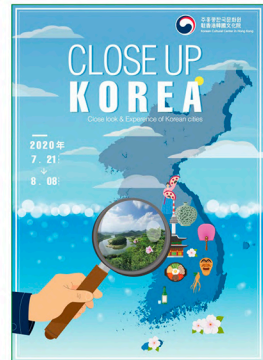
<K-POP STAGE FOR YOU> 포스터

(사진출처: 주홍콩 한국문화원 제공)



한국 지역관광 전시회 포스터

(사진출처: 주홍콩 한국문화원 제공)



일본 - 동경

○ 온라인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Tokyo [9.26. | 온라인]

-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일본 내 최대 한일문화교류 행사로 공연은 물론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실시

○ 한국의 매듭 소개전 [9.17.~10.13. | 한국문화원 갤러리MI]

- 한국의 국가 무형문화재 매듭장과 소속 작가의 매듭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

○ **한복전시** [9.3.~9.29. | 한국문화원 갤러리M]

-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다양한 한복의 매력을 소개하는 특별기획전

일본 - 오사카

<2020 케이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 포스터
(사진출처: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제공)



○ **2020 케이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
[9.19. | 문화원 SNS]

- 서울신문과 협업해 응모자(마감 9.5.)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팀을 본선에 진출 시켜, 대회당일(9.19.) 출전자의 퍼포먼스를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심사하고, 실황 영상을 차후 문화원 유튜브에 공개 예정. K-POP 아이돌의 응원메시지 등도 함께 수록 예정

○ **K콘텐츠통호회 V-LOG**

[9월 중 (8.4.부터 게재시작) | 오사카 시내, 문화원 SNS]

- 현지 문화 관계자를 중심으로 통호회를 결성해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브이로그를 제작해 한국문화에 대한 공감대, 관심도 확대

K콘텐츠통호회 V-LOG

(사진출처: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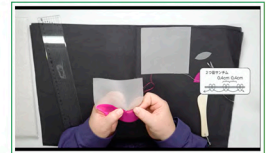
○ **K-CULTURE 온라인 체험교실**

[9월 중 (매월 1강좌 게재) | 문화원 SNS]

- 현지 문화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자기, 사물놀이, 가야금, 전통무용, 민화, 한지공예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온라인 특별강좌로 제작해 배포

K-CULTURE 온라인 체험교실

(사진출처: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제공)



인도

○ **제 4회 한인도 친선 퀴즈 경연대회** [9월 중 | 온라인]

- 해외문화홍보원이 발행한 'Facts About Korea' 책자에 실린 내용에 기초한 퀴즈 대회 개최

싱가포르

○ 싱가포르 중추절 축제에 <한국 등(Lantern)> 특별전시

[9.18.~10.4. | 가든스 바이 더 베이]

- 서울관광재단의 협조로 전통한지로 만든 한국 등(Lantern)을 싱가포르 중추절축제기간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전시

인도네시아

○ 한국명절 <추석> 온라인 체험 행사 [9월 말 | 문화원 SNS]

- 추석맞이 명절음식, 명절놀이 등 소개

○ <한국의 소리, 국악> [9월 매주 화요일 | 문화원 SNS]

- 국립국악원 공연영상을 인니어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방송

○ 온라인 트로트 강좌 1~3회 [9월 | 문화원 SNS]

- 트로트 강사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트로트 곡을 소개

베트남

○ 코로나19 소통·홍보 온라인 공공외교사업 [6~12월 | 온라인]

- SNS 게시물, 영상 콘텐츠 제작, 한-베 청소년 기자단 운영, SNS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한-베 우호 메시지 확산, 온라인·SNS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제한되는 사업 운영 한계 극복

○ K-Beauty 온라인 강좌 [9월~ | 온라인]

- 뷰티전문가를 초청해 한국식 메이크업에 대한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 문화원 SNS에 업로드 함으로써 K-Beauty에 대한 현지 홍보 기회 확대

○ 베트남에 출간된 한국문학 소개 동영상(북 트레일러) 제작 [8월~ | 문화원]

- 한국문학 소개 영상을 제작해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 도모, 문학에 관심 있는 팬층 발굴, 문화원 지지층 확대

카자흐스탄

○ 문화원과 함께 보는 온라인 한국영화 상영회 [9.23.~10.4. | 온라인]

-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주재국민을 위해 온라인 한국영화 상영회 개최

UAE

○ <오감도: 한국미술의 다섯 풍경> [8.18~11.30. | 온라인]

- KOFICE지원사업 트래블링코리아나츠로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오감도: 한국미술의 다섯 풍경> 온라인 버추얼 전시회를 진행

이란

○ 2020 한-이란 학술문화 교류 온라인 세미나 개최

[9.17. 10:00~12:00 예정 | 온라인]

- 한-이란 간 학술문화 교류 관련 주제발표, 토론

- 주제발표

△ 역사적 유물로 본 양국 간 문화교류 현황(덕성여대 이승란 교수)

△ 세계 언어 현황과 한국어 최근 동향(송향근 부산외대 교수)

△ 한-이란 간 교육 분야 교류 현황과 전망(Tayebi 이스파한대학 교수)

△ 한-이란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과 전망(Salar Amoli, Acting Minis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MSRT)

오세 아니아

호주

○ 한국문학 북클럽 [9.23. | 문화원]

- <마당씨의 식탁(Umma's Table)> 책을 읽고 한식요리사와 한국계 코미디언 진행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

나이지리아

○ 매듭공예 배우기 영상 제작·상영 [8.24.부터 총 6주간 | 문화원 유튜브]

- 한국의 매듭공예가를 섭외해 매듭배우기 영상 제작, 3가지 기초 매듭 만들기과 응용 소품 만들기 영상을 6회분 시리즈로 제작해 업로드 할 예정

○ <애매모호한 갈라쇼> 공연실황 단독상영 [9.8.~9.15. | 문화원 유튜브]

- 내용 : 제26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참가작인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신작 <애매모호한 갈라쇼>의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실황을 온라인으로 상영

○ 개원 10주년기념, 역대 대사배 태권도대회 아카이브 영상제작 [9월 중 | 문화원 누리집, SNS]

- 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매년 개최된 대사배 태권도대회의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아카이브 영상을 제작·상영

매듭공예 배우기 강좌 포스터

(사진출처: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제공)



<애매모호한 갈라쇼> 공연 포스터

(사진출처: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제공)



이집트

○ 추석 행사 [9.4. | 문화원 SNS]

-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한국 고유의 의식주 생활양식 등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Vol.7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2020년 9월호

발행처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발행일

2020년 9월 8일

발행인

김현기

기획 및 편집 총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강민영

www.kofice.or.kr

외부 집필진

조성제 | 주싱가포르 문화홍보관

정회경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학부 교수

디자인

studio 213ho

www.213h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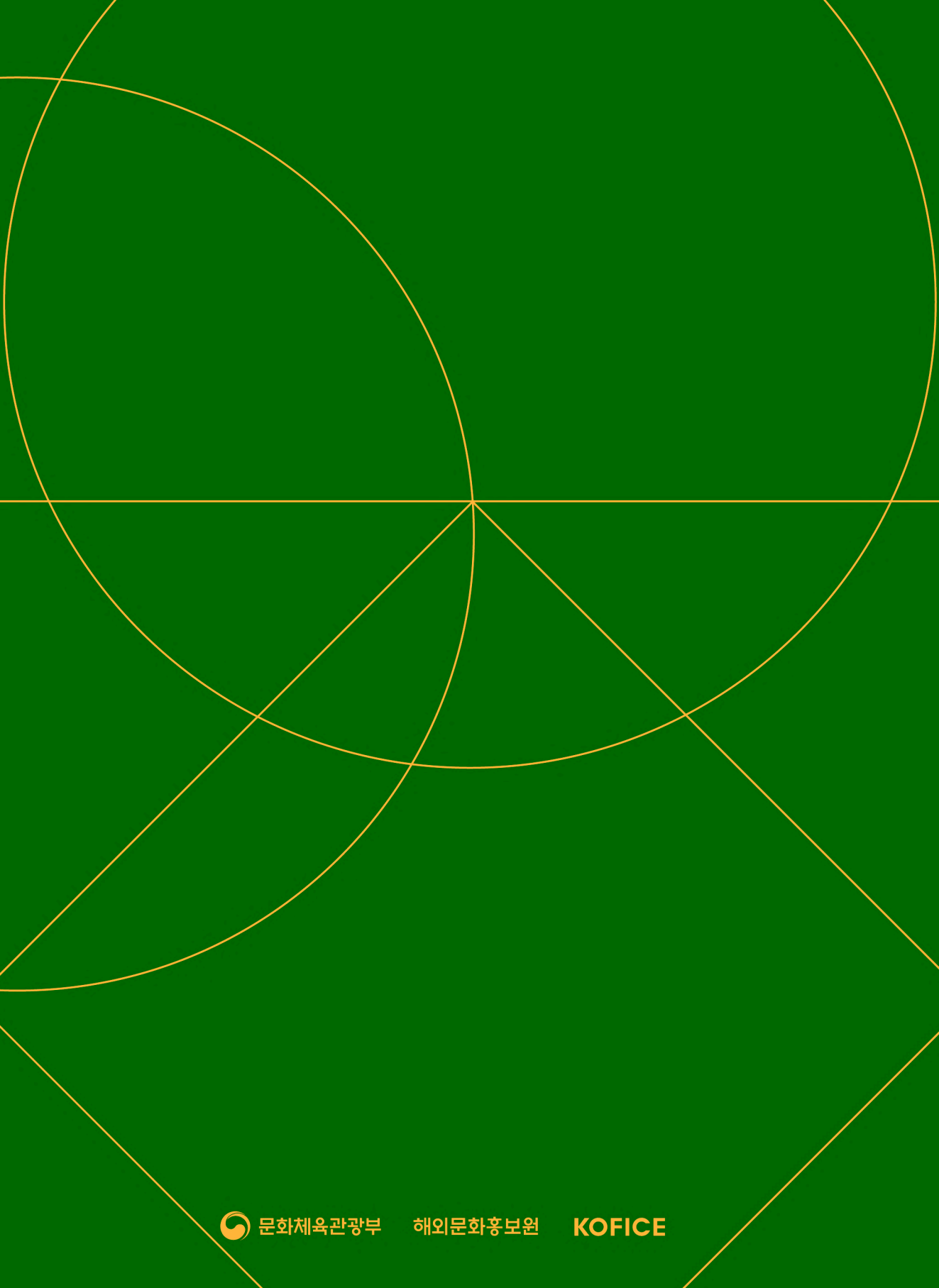
ISSN 2713-9387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